

平昌郡議會本會議會議錄

第40回平昌郡議會

第 2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1996年 6月 4日(火) 10時00分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1. 郡政에關한質問
2. 休會의件

附議된案件

- | | | |
|--------------------|-------|------|
| 1. 報告事項 | _____ | 2 面 |
| 2. 郡政에關한質問 | _____ | 2 面 |
| 3. 議事進行發言(李慶鎮議員)의件 | _____ | 35 面 |
| 4. 郡政에關한質問(繼續) | _____ | 37 面 |
| 5. 休會의件 | _____ | 82 面 |

(10時05分 開議)

○ 議長 金樂雲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재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과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집행부에 군정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을 질문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질문과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사무과장으로부터 들도록 하겠습니다.

1. 報告事項

(10時06分)

○ 事務課長 李京植 :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실음)

○ 議長 金樂雲 : 사무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2. 郡政에關한質問

(10時07分)

○ 議長 金樂雲 : 그러면 제1항 군정에 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오늘과 6월 7일 2일간에 걸쳐 오전에는 의원이 질문을 하고 오후에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오늘은 발언신청을

하신 일곱분중 다섯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이상훈부의장, 이경진의원, 유돈문의원, 김두경의원 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훈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相薰 議員 : 이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자치시대의 2년차를 맞이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군정을 펴고 있는 김용욱 군수님을 비롯하여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행정 환경속에 각종 민원등 군민의 바램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가지의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상수도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은 예로부터 산 좋고 물 맑은 고장으로 이름이 나 있으며 특히, 평창강은 1급수로서 식수로 그냥 마실수 있는 그야말로 천혜의 자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질문명의 발달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그 오염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상수도와 관련한 민원은 그칠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창상수도에 투자된 내용을 살펴보면 '93년도에 평창상수도 시설확장 공사 15억7,400만원, 94년도에 고속응집 침전기 설치공사 6,300만원, 95년도에 평창상수도 취수보 설치공사 3억300만원 96년도에 고속응집 침전기 1기 설치공사 8,800만원등 총 20억2,917만6천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었어도 비만오면 수도꼭지에서 흙탕물이 나오고 있으며 양질의 맑은물을 마실 샘물을 운반하여 먹고 있습니다.

지난해 장마철에 흙탕물이 공급되어 민원이 발생하자 군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물의 농도가 너무진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계속하다가, 결국은 주민단체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여 감사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집수매거공사 시공부적정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원에 지적한 내용을 살펴보면, 본 공사는 평창강의 하상 하부를 흐르는 복류수를 원수로 정수처리한 후 수용가에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시행

하는 것으로 복류수를 취수하기 위한 길이 120m의 집수매거는 하상으로부터 3.1m 내지 5.1m 깊이에 매설하고 집수매거 상단으로부터 각각 50cm 두께로 굵은 자갈, 중간자갈 및 잔자갈을 포설한 후 일반 자연 토사를 되메우기 위하여 자연 하상과 수평을 유지하게 시공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집수매거를 설계깊이보다 54cm내지 90cm가 부족한 2.44m내지 4.2m 깊이에 매설한 후 굵은 자갈등을 포설하여 자연하상과 수평이 유지되게 시공하는등 공사비 1억6,100만원상의 집수매거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여 우기시 토사에 의해 오염된 지표수가 특수성이 높은 자갈층을 통하여 집수매거로 유입되어 탁도 최고 780도 상당의 원수가 취수됨으로써 적정정수 처리가 어려워 음용수 수질허용기준 탁도 2도를 크게 초과하는 탁도 최고 55도 상당의 음용수를 공급하게 되었다는 감사원의 결과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사항으로 부당시공된 공사비 1억6,100만원 상당의 집수매거는 공사계약에 따라 계약자로 하여금 설계

내용대로 재시공조치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데, 사실인지요.

군에서는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적법하게 재시공 하였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평창상수도 취수원 이전공사비 4억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졸속, 즉흥 행정의 표본이라 생각 합니다.

'93년도부터 '95년까지 3년차에 19억4,000만원을 투자하고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아 재시공까지 하고서 이제와서 취수원 이전공사를 또 한다고 하니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행정에 대한 신뢰성, 연속성, 장기적인 안목등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사항을 요약하면 평창상수도 재시공 사항, 상수도 취수원을 이전 해야만 하는 속사정, 엄청난 상수도 사업비 낭비를 초래한 관련 공무원 문책사항등 평창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지난 '92년부터 5년차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마을안길 포장사업은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으로 농어민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오랜 숙원사업이 일부 해결되었으며 도정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도비30%, 군비70 부담 원칙으로 금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서 그 성과는 긍정적이었다고 생각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군에서는 총 사업량 174km 중 74km를 추진하고 아직 100km의 농어촌 마을안길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도비 보조없이 순수한 군비 7.5km에 6억4,300만원이 투자하게 되어 있으며 나머지 92.5km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농어촌환경은 날이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으며 농토를 팽개치고 떠나는 농촌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잡초만 무성한 논과 밭을 볼때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이 실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황폐되어 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군 자체로 농촌마을 안길 사업을 재점화 하여 강력하게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樂雲 : 이상훈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慶鎭 議員 : 이경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김용욱 군수님을 비롯한 박용강 부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이 반이라더니 2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모자라고 항

시 부족함 투성이였습니다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염려해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덕분에 조금씩이나마 의정활동에 익숙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어 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전실과장님들 또한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모든것이 때가 있듯이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고는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기약할 수 없고 아무리 시급을 다루는 일이라 할지라도 바늘 허리에 실을 꿰어서는 쓸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일은 완급을 잘 조절하고 우선순위를 잘 판단해야만이 그 효과를 배가 시킬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한치앞을 예견치 못할 정도로 집단민원 해결과 군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1년예산900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생각올모아야 하리라고 판단되는데 지금의 우리군 실정은 어떻습니까?

각 실과장들께서는 죄송합니다만 매우 피동적인것 같습니다. 아니 전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노력을 하여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지워 버릴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자리만 지키고 다소곳이 앉아 있으면 2등은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낮으로 열심히 뛰어도 국민복지 증진을 위하여서는 여유있는 시간이 있을리가 없지 않습니까? 왜들 이렇게 복지부동입니까, 존경하는 군수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 실과장들이 정말로 할일을 찾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전부 무능해 졌습니까? 아니면 지나치게 몸조심을 하는 겁니까? 군수께서 너무 일방적인 사고로 필요 이상의 강압적인 스타일로 군정을 이끄시는것은 아닙니까? 여기서 잠시 의회와 집행부 임기1년을 정리해 보면 그해 답이 찾아 집니다. 집행부 임기 1년동안에 비생산적인 내용으로 각 언론사에 보도되는 우리군의 실정이 지방신문은 물론이고 중앙신문 및

TV에 1년동안 무려 22회, 1개월에 2번꼴로 보도되었습니다. 생산적인 일과 건설적인 내용으로 군정이 피알되어도 부족할텐데! 아마 전국에서 평창군을 모르는 자치단체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의회에 탄핵소추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우리군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완전자치시대가 시작된지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군수께서도 여러가지 생각하시는바 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마는 한가지 분명한 것은 군수께서 추진 할려고 밝히셨던 공약사항들 대부분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전원주택개발사업, 장애인복지시설, 경

로당 문제, 지방주민이 참여하는 스키장 개발, 생수사업, 약초엑기스 공장 및 민영스키장 개발의 추진이 아직까지는 방향설정이 미약하지 않습니까?

또한 군수와 실과장들 사이가 매우 경직되어 있다는 것이 언론에서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의 개인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이 전원 참여하는 주식회사로서 토론과 협의에 의하여 민주적인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바람이 아무리 강하게 불어도 지나가는 행인의 옷을 벗길수 없듯이 결국 따사로운 햇빛이 행인의 옷을 벗길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풍요로운 산림을 하루속히 만들어 보시겠다는 욕심은 좋습니다만, 서두르시면 뜻하지 않는 난관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뒤를 돌아 보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군정을 펼치셔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탁월한 추진력과 돌파력은 우

리군이 성장 발전하는데 반드시 밑거름이 되는 날이 오리라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소외되고 거리감을 느끼는 직원들에게 인자함을 보이셔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흩어진 행정력을 추스리시고 조직하셔서 에너지를 집결시켜야 할 때라고 보면서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더 몇가지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95년 본의원이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해당되는 과별로 답변 하시기 바라고, 평창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이법은 당초 도움 배후 농어촌지역에 경제 문화 행정등 종합중심지로 개발지원의 집중 확대로 지역균형 발전과 정주생활권, 기반조성으로 만들어 졌으나 그후 '72년부터 내무부 역점시책사업으로 읍지역에 대한 투자가 면과 시지역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면지역은 2000

년까지 총 8조9,000억원을 투자하고, 시지역은 2001년까지 67조 7,000억원을 투자하고, 읍지역은 각읍당 20억에서 50억 범위안에서 2,3년간 특별교부세30% 지방세70%, 도비35%, 군비 35%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확정 발표되어 추진중에 있는데, 우리 읍은 언제 이사업이 시행되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삼방산 개발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평창군수께서 지역균형 개발차원에서 삼방산에 스키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오셨고, 일부 미동이나마 움직임이고 계신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지방주민과 함께 투자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대기업에서 시설 할 수 있도록 유인하여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공설운동장 및 '98

년도에 완공되는 문화예술회관등을 유효 적절하게 이용하고 이에 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미 8t 이상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된 중부 위험교량을 소형차 전용교량으로 쓰고 평창읍에 숙원사업이고 중부도시계획 확장에 절대적으로 필요성이 시급한 군청앞에서 중부간 교량 신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는 경영소득사업으로는 전원주택개발사업을 추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내용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에 전국 24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소득사업으로 모두 722건의 수익사업을 벌여 3,077억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택지조성사업이 69건, 골재채취사업이 95건, 관광유원지개발사업이 125건등으로 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골재조달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시

고, 아울러 골재채취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골재재원은 우리군에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현실적으로 양질의 골재가 쌓여 있는 마지지구에 하천골재 채취를 검토해 보셨는지 일부 토지보상 요인은 있으나 보상비에 몇십배의 순수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개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라고, 주식회사 보광관련 골프장공사 토사유출이 우기를 앞두고 심각하게 예상되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고 군수께서는 선거공약으로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휴양시설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평창군에는 경로당이 27개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보조 대상 경로당은 24개, 아직까지 보조대상에 포함되지 못한곳이 3개 입니다.

경로당 1개소에 국비 및 도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난방비가 98%, 운영비86% 입니다. 노력과 의지만 있다면 열일을 체크놓고라도 경로당을 지어서 국비·도비 보조는 물론 지역노인복지 정책에 앞

장서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우리군에 특별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인근 주변 정선에는 정부에서 보조 받는 경로당이 76개 있습니다. 영월은 80개, 철원은 89개, 횡성은 96개 홍천도 무려 99개가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직접 답변하시기 바라고, 우리군 산업과에서는 평창군 전체로 볼때 '95년도 소득사업으로 100억 3,400만원을 투입했고 '96년도에는 48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감소된 금액이 무려 50%나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시고, 특히 평창, 미탄, 방림, 대화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서 산업과의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주민들이 사업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서 사업신청을 할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어떤 사업이 있는지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특히 산업과장께서는 담당부락이 평창읍이 아닙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번영회동에 수

시로 참석하셔서 국책사업을 설명하시고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 하셔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그렇게 할때 많이 낙후되는 농촌을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문민정부에서는 '94년 6월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향을 마련해서 농어촌발전추진대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42조원의 구조개선사업을 조기에 실현하고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10년 동안에 15조원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94년 12월 농어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상향식 자율농정체제를 기본바탕으로 하는 농정수산 통합실시요령을 제정 하였습니다. 이 통합실시 요령의 줄거리는 농촌 구조개선사업 부분에 46개 항목으로 지원 용자되게 되어 있으며, 임업부분에 25개항, 또한 농축산물 생산유통 부분에 58개 항목으로 용자지원 되는 사업별 세부 계획이 '95년에서 2004년까지 항목별로 있는데 이 기회를 잘 이용한 시군과 그렇지 못한 시군의 차이는 엄청 나리라고

생각 되는데, 지금까지 산업과장님께서 담당부락 활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하시고 산업과 뿐만이 아니라 타부서 과장님들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리라고 판단되는데,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부군수께서 의지 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진 ~ 방림간 군도3호선은 언제 착공합니까?

평창군은 광활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특히, 평창읍은 교통의 사각지대로서 고속도로와도 연계가 사실상 어렵고 개발의 불모지로서 대 집행기관에서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 균형개발 정책에도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불을보듯 뻔한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읍소재지로서 해마다 동절기에는 국도 31호선 뱃제구간의 불통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도 재시공을 하던지, 장평에서 영월간 4차선 추진을 서두르기 위해서 건교부를 방문해서 부탁이라도 해

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 번영회 및 주민들은 1만명의 서명을 받아 건교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고, 군수께서는 건교부 방문계획 용의는 없으신지, 아니면 벌써 갔다 오셨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아울러 평창읍은 뱃재가 막히면 서울, 원주, 강릉쪽으로 갈 수 있는 어떠한 통로도 없습니다. 이런 외통수로 고립되어 있는 지역 평창읍에서 서울, 원주, 강릉방향으로 갈 수 있는 우회도로 개념이라도 추진에서 방림간 군도 3호선 개설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조기 착수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암면 용산리 불법농지전용 처리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용평리조트사업 부지의 일부 농지를 20여년이 넘도록 불법전용해서 나무를 심고 공사용 호박들을 적치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불법 농지전용은 알뜰할 정도로 적발 되는데, 12,587평이라는 엄청난 면적의 농지가 20여년간 무단

속 상태에서 불법 전용되어 왔다는 것은 현재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늦게나마 적발이 되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 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6년 12월 31일까지 원상복구후 준공검사를 득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민일보 5월 28일자 보도에 의하면 20여년전 전용된 농지의 무리한 원상복구 명령이란 보도가 있습니다. 신문기사 내용을 파악해 보면 행정소송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불때 본건을 처리하면서 대단히 신중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군에서는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매월 15만원씩 주고 사건에 따라서 별도 수입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문제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으십니까?

만일 회사측에서 행정명령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이라도 해서 우리군에서 폐소한다면 우리군은 공신력이 땅에 떨어지고 행정에서 권위 또한 흔들리고 말것입니다. 그 증거로 '95 김용욱 군수께서 취임하신 이후 행정 소송한 건수는 모두 3건, 그중 1건은 1심에서 승소 했으나 아직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2건은 폐소했고, 소청 1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월정액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고문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처리 했어야 할 문제를 법률자문도 구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지시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樂雲 : 이경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돈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燉文 議員 : 유돈문 의원입니다. 민선자치 단체장 시대를 맞이하여 2대 평창군의회에서 2회째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본

위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월댐 건설로 본군 천연기념물 260호 수몰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월시내 침수로 인하여 건설교통부가 남한강 상류인 영월댐을 50억원을 들여 98년 12월 말까지 설계완료 2001년에 댐을 완공한다는 강원일보 5월 9일 보도를 보고 영월군에서는 환영을 하겠지만 본 군에서는 천연기념물이 수장 위치에 처하여 있습니다.

또, 미탄면민들은 댐이 되면 안개지역으로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말에 불안을 금할길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천연기념물을 그대로 수장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우리나라 동굴학 박사의 말에 의하면 천연경관을 그대로 다른 동굴에다 석고로 모양을 보전 동굴로 개발하여 관광 소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계획 한바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발촉진지역 지정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미탄면이 광산지역으로 정부에서 폐광지역 특별법 지정의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이유를 본의원이 36회 임시회의 때 군정질문을 하였을시 집행부에서는 평창군이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미탄면을 우선적으로 폐광지역 대책으로 '97년부터 개발지역으로 된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금년 3월 18일 강원개발연구원이 본군에 와서 보고회때는 평창군이 동해권이 아니고 중부지역 원주권으로 속해 있는 관계로 개발촉진지역으로 확실히 지정되지 않고 있는것을 지정된 것으로 군민에게 답변을 해서 지역군민의 실망을 초래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3개군 행정협의회 발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시대에 맞추어 3개군이 행정협의회를 발족하여 동시에 개발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보면 영월군은 31번 국도 평창군까지 원동계 터널공사

계획이고 평창군도 31번국도 장평까지 4차선 계획이며 정선군은 본군 미탄면과 접해 있는 밤치재 터널공사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3월 22일 영.평.정 행정협의회 개최 회의안건을 보면 미탄면민은 참으로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미탄면이 본군에 속해 있는데, 본군의 계획은 빠져있고 인근 정선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미탄면을 도대체 정선군으로 착각하는지, 면민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42번 국도 확.포장시 편입토지 보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42번 국도가 정선에서 미탄을 거쳐 방림면을 통과하는 것이 42번 국도입니다.

도로 확.포장시에 미탄면 백운리에 도로 편입 토지가 현재까지 지주 주민에게 보상이 안된 상태에 지금도 군 토지대장에는 미등기로 되어 있는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도로로 편입

되면서 지주와 상의없이 국토청에서 자동 분할시켜 지주가 미등기 신청 통보를 모르고 있을때 군에서는 강원일보 신문에만 기간을 공고하고 지주에게 통보를 하지 않아 지주는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에서 미등기 신청 기간도 5개월만 하고 미등기 기간은 연말까지인데 비해 짧게하여 지금 지주가 토지보상을 못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집행부에 누차 건의를 하였으나 지금까지 해결치 않고 미등기로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 합니다.

다섯째, 송어양식장 오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미탄면은 송어양식장이 10여개 이상 있으므로 개울오염이 심각하여 주민의 여론의 대상으로 군으로부터 정화조 시설을 지시받아, 정화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해 놓고도 정화조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개울에 폐수를 유입시키고 있으나 집행부 감독부서에서는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송어양식장 정화조 사용을 하지 않고 있

는 송어양식장을 법적처리가 없어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또한 양식업자를 봐주고 있는지 집행부 감독부서에서 철저한 감독을 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본군 미탄면 취락구조 지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광산 합리화로 인하여 미탄면이 인구 감소로 도시계획정비지역에서 제외되어 취락구조개선사업 대상지역으로 군에서 책정 '95년도 상반기에 미탄면을 방문하여 취락구조 사업으로 제1안과 2안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를 가진바면민들이 제1안으로 결정을 하여 집행부에 요구 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즉시 제1안으로 설계하여 인도를 구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95년이 지나고 또 '96년도 상반기가 지나가도 아직까지 아무 대책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미탄면을 취락구조 개선 지역으로 개발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개발할 의지가 없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할 의지가 있다면 도로의 선형을 하루빨리 찾아 주어야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들의 주택개량도 할 수 있기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 및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도 폐광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가 2000년까지 2조 6,500억원을 투입하여 4개시군, 태백, 정선, 영월, 삼척을 폐광진흥지구로 지정, 관광레저산업과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본군 평창군만이 폐광지역에도 제외되어 있고, 또 개발촉진지역으로도 제외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평창군이 폐광지역이나 개발촉진지역에 다 속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미탄면은 6,000인구에서 광산 합리화로 인구가 2,500명으로 줄었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하여야 함에도 안일한 행정으로 본군의 2가지 사업이 제외된것은 본의원이 지적하기로는 집행부 잘못이

많은 것으로 믿습니다.

어떻게 집행부가 이런행정을 해서 해당 지역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군민의 혜택을 전무 하도록 합니까?

이렇게 하고도 책임있는 행정을 한다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樂雲 : 유돈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후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停會)

(11時00分 續開)

○議長 金樂雲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이어 의원의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洙現 議員 : 이수현 의원입니다. 오늘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두번째로 맞이하는 군정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은 한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 드리고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사실 국회의 대정부 질문이나 우리 군의회 의 군정질문은 의원들이 평소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확실한 군정의 목표 설정을 유도하여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는 의정활동중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질문은 질문으로 끝나고 답변은 답변으로 일관하는 그런식의 질문과 답변이 계속될 때에는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점을 명심 하시고 본 의원의 질문은 곧 군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검토해 보겠다던가"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는 추상적이고 일상적인 답변을 떠나서 구체적이고 계획성 있는 확실한 실무 책임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할수 있는 답변이 제시되

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95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민선군수 취임후 밝힌 군정목표 5가지중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또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이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 초기의 의욕과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간데 온데 없고 지금 우리는 여러가지 생활민원과 소지역 이기주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을합쳐 열심히 노력해도 부족함을 메울길이 없는 이때 민선군수 체제가 출범한지 1년이 다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평창군의 집행부는 갈길을 정하지 못하고 머리는 머리대로 몸은 몸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제각기 움직이고 있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 한 예로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무려 10여차례 이상 보도된 언론자료를 보면 우리 평창군의 부끄러운 모습을 곳곳에서 찾아 볼수가 있습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던 간

에 10여일 이상을 대문짝만 하게 부끄러운 내용의 보도가 계속되어도 누구하나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 평창군의 얼굴인 행정 최고책임자가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은 결국 한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군수뿐 만 아니라 그를 보좌하고 있는 모든사람들, 그리고 이자리에 서있는 본의원을 포함한 의원님들, 나아가서는 우리 평창군민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인기와 사사로운 정에서 벗어나 취임초기의 의욕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가 우리 평창군민의 군정목표를 어떻게 이룩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번 국도의 4차선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31번 국도 확포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더이상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 군민들이 뼈저리게 느끼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0여년전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될 때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한 지역과 그외의 지역은 비교가 될 수 없을만큼 모든면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도로망의 확장이야말로 우리 평창군 발전에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4회 동계 아시안게임 준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국가시행사업에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의 관문인 장평에서 평창구간만이라도 이 계획에 포함시켜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그동안 집행부,의회,군변영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건의해 왔지만 별 성과가 없는것 같은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용의와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도 4호선중 대화3리에서 개수리를 연결하는 군도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약 6km에 달하는 이 도로구간이야말로 앞으로 대화면의 생존권이 달린 도로라

고 말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대화면에서 개수리는 물론 금당계곡과 영동고속도로, 그리고 보광 휘닉스파크를 연결하는 이 도로의 확포장 사업이야말로 대화면 뿐만 아니라 침체되고 있는 평창군 남부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수년전에 세워논 중장기 계획에 보면 2000년 이후에도 확실한 사업 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정과 아울러 투자순위를 앞당겨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군도로서의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지방도로 승격시켜서라도 조기에 착공할 계획은 없는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경로당의 문제점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근 영월, 정선군과 우리 평창군을 비교해 보면 그동안 우리군의 관계자들의 자세가 얼마나 무사안일 했었는가 한는

으로 확인이 될 것입니다.

영월군은 2,978명의 회원수에 84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선군은 2,642명의 회원수에 73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창군은 3,520명의 가장 많은 회원수에 고작 27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을뿐입니다. 또한 국, 도비가 대부분인 '96년도 운영비 지원현황을 봐도 정선군은 3,900만원, 영월군은 4,490만원이나 되는데 우리 평창군은 고작 1,880여 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다른군의 예를 들어보면 홍천군은 106개소의 경로당에 5,700여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었고 군세가 작은 양구군 같은곳도 51개소의 경로당에 우리 평창군의 두배가 넘는 3,700여만원의 운영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106개소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홍천군은 '96년도에도 군비 4억원을 포함하여 국,도비 지원 7억원을 받아 총11억원을 투자하여 열한동의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의 열악한 노인복지시설을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향후 경로당을 신축할 용의는 있는지,
경로당의 운영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집 역시 영월군이 7개소, 정
선군이 9개소에 이르는 반면, 우리 평창
군은 평창읍 2개소와 봉평, 진부면에
각 1개소씩 해서 고작 4개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또한 1개면에 한
개씩은 운영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는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내 복지회관 역시 시설의 노후와
협소한 면적으로 인하여 개선대책이 요
구 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96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
업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장의 대부분이 고질적으로 안고있는
문제점입니다만, 해마다 농장을 부리는
업자의 태만과 사업부서의 관리, 감독 소

홀로 인하여 야기되는 영농계획의 차질,
또 하도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실공
사의 원인 등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직 공무원의 결원충원에 대
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2조 4의 규정에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우수한 지방공무원의 확
보를 위해 각급학교의 학생에게 장학금
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무복무케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을 '79년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
았고 '85년 평창군규칙으로 평창군 지방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을 정하였으
나 기술직공무원의 결원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도록 그 제도를 한번
도 활용하지 않고 결원을 그대로 방치한
사유는 어떠한 명분으로 이해 할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 학
생에게는 희망을 주는 제도이며 지역인
재 양성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갖추고 있

는 훌륭한 제도인데도 이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제도를 활성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한 평창장학회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단순히 원시적인 가계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자격정관을 개정하여 공무원 충원과 연계방안을 강구해서 향토인재의 양성과 등용이라는 시혜효과를 극대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우수대학 내지는 전문대학과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결원을 장기적으로 충원 한다면 인맥을 지속적으로 형성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기근상태를 해소 하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충원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공동 급수시설 개선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을공동 급수시설은 '95년말 현재 8개 읍면 105개소에 1만1,00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70년대 후반부터 위생적 급수를 목적으로 간이급수시설이라는 시책으로

마을단위로 설치되어 9개소를 제외한 96개소 지표수를 집수하여 이용되어 왔으나 현재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표수만으로는 수량이 적고 질 또한 농약과 환경오염 피서객들의 쓰레기투기등으로 오염되어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어 지하수 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고 농촌은 문화생활의 사각지대인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책으로 지표수를 사용하는 마을공동 급수시설을 지하수로 개발하여 음용수를 생수로 급수하고 농수원의 안전공급이라는 두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평창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의 보수비를 군수와 마을주민이 각각 50%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여 소요 보수비를 매 회계년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기적으로 보수비를 계상한 사례도 없고 또 50%의 주민부담율도 현실

에 맞지않고 또 그렇게 보수한 사실도 없는점은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이 없음에 비추어 주민 부담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가지 사안에 대해 조례를 여러건 제정한것중에서 가장많은 것은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뜻으로 본 의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지역에는 종량제 시행 전후를 비교해 볼때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수입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한 '94년과 '95년의 비교 분석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판매용 쓰레기 봉투가 지나치게 얇아 찢어지거나 사용이 어려워 다른봉투에 다시 이중으로 담아 배출하는 사례가 있고 윗부분을 매어서 버리는 불편한점

이 있으며 종량제 대상지역에서 대상외 지역으로 무단이동 투기하여 인접지역에서는 종전보다 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대책없이 그대로 두고 있으며 특히 피서철에는 군내 전역이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이 부진한 것은 단속행정의 누수가 있는것이 아닌지, 폐기물관리에 대한 일곱가지 조례.규칙중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등을 부과.징수한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94년부터 분기별 발생추이를 내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화면 상안미3리 미날교 공사계획 및 사업비 확보에 대하여 간략히 질문 하겠습니다.

미날교는 '74년 새마을공사로 완공된 교량으로 그 폭이 120m에 이르고 있고 안미국민학교에 등교하던 어린이들이 나뭇배가 뒤집혀 참사를 빚은곳 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지금의 교량에서 또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미날교의 공사계획과 재원확보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농림수산사업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도에 확정된 내용을 검토해 보면 모든 농민들에게 고르게 혜택이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와 투기성 있는 특정인에게 중복해서 용자 내지는 보조금이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실제로 순수한 농민들의 영농의지를 오히려 반감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부담액의 투자확인파 사업의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화면 신2리 대화산업개발의 규석광산을 재허가 처리한 내용과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얼마전 무허가 골재판매로 언론에 보도되고 관계 기관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지난 연

말에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관계부서에 주지했던 점을 밝혀 둡니다. 대화산업개발은 이미 지난해 부터 무허가 골재를 생산하여 관내 주요 공사현장의 관급자재로 공급되어 왔으며 심지어는 일부 레미콘회사에도 판매되어 각종 현장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보광의 사업현장, 해태생수공장 진입로 포장개수에서 백옥포리간, 신3리에서 진부마평구간의 군도 확포장 공사의 보조기층 골재로 엄청난 량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허가부서인 산림과는 물론이고 공급을 받은 레미콘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 그리고 골재문제와 군도 확포장 사업 담당부서인 건설과, 이 3개 부서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흙먼지가 발생하고 기름이 유출되어 농경지를 오염시키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해치는 결과만을 초래한 규석광산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균유림을 15,000㎡나 추가해서 산림훼손 허가를 해주었는지 그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허가 불량골재가 공급된 각종 사업 현장에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무허가 골재의 다량반출에 따른 '96년도 골재허가업체의 골재수급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허가 이외 지역의 훼손으로 야기된 산림법 위반에 따라 재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폐석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반출한 그동안의 폐석량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사용료를 징수함이 타당함을 이자리에서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이수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斗經 議員 : 김두경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군정질문은 담당과장의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2차 본회의에서 1건과 6월 7일 3차 본회의로 나누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봉평면 도읍정비 사업에 관하여 사회진흥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봉평면 시가지 도읍정비는 본군의 어려운 예산을 반영시켜 금년까지 4년차에 걸쳐 시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문제점이 라던가 현 공정으로 보아 금년에도 마무리가 우려되어 재삼 사회진흥과장께 측구와 함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본 의원이 '95년도에 도읍정비사업 문제로 군정에 반영 추진코져 질문을 하였던바 담당 부서에서는 부족된 예산을 확보하여 '96년도에는 직원을 상주시키다시피 하여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완공 하겠다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한 사실을 과장께서는 인정 하시는지, 또한 상반기 중으로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인지 다시한번 기대하고 믿어야 될것인지 정말 의심스럽고 말로만 하고 행동실천을 이행하지 못한 담당부서에 대하여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년차에 걸쳐 마무리 할려고 했던 사업을 3년, 4년차까지 연장하면서도 진

척이 늦어지는 이유를 분석하고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성 있는 행정을 펼쳐나갔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지역의 불리한 여건 및 주민의 협조문제의 원인으로 인하여 집행부에서 다소의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철거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대책과 균유지 폐도, 구거불하, 도시계획 재정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집행부에서는 좀더 적극성을 갖고 협의 추진 하였으면 민원의 야기는 물론 이월애 이월사업까지도 시행되지 않았으며 완공이 계획대로 추진 되었으리라고 판단 합니다.

날이 갈수록 교통체증은 물론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지가상승으로 인한 용지보상 미지급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게 된데 대한 주민의 불만이 고조된 것은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 됩니다.

도읍정비 사업지연 문제로 인해 주민으로부터 집행기관이나 의회 불신의 원성

은 본인으로서도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역주민의 대표자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로 인해 의회차원까지 지탄을 받는 일이 된다면 의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집행기관에 무엇을 믿고 반영하여 어떻게 군정발전에 기여해야 되겠습니까!

지역에 모든 현안사업이 본 사업과 같이 발주 추진된다면 평창군 지역발전의 저해는 물론, 군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명심하시고 담당부서에서는 더한층 행정력을 투입시켜 소신있고 능동적으로 본 사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촉구하며 '96년도에는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과장께서는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김두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오후에 들은다음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한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時25分 停會)

(13時30分 續開)

○ 議長 金樂雲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답변이 끝나는대로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사회진흥과장 송재명 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내일부터

개최되는 도민체육대회에 진력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 김낙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상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95년말 현재 농촌마을길포장 사업현황은 총연장 174km에 74.68km를 포장하여 43%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도부터 농촌마을안길 포장사업 확충의 일환으로 강원도에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도비 30%와 시군비 70%로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추진했으나 당초 174km중 43%인 74.68km를 실시하고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금년부터 사업지원이 중단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금년도에 군비 6억4,300만원을 확보하여 7.53km의 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마을안길 포장사업은 기본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으므로 주민속

원사업 차원에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미포장된 마을안길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평창 읍소도읍가꾸기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2년부터 내무부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오던 소도읍개발사업은 금년부터 면지역은 오지, 생활여건개선, 정주권개발사업 등으로 추진하고, 읍지역은 2000년까지 5개년동안 총 50억원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투자하도록 시책이 변경되었습니다. 투자재원의 비율은 특별교부세 30%, 도비 35%, 군비35%로 구성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대상도읍 선정절차는 매년 지원 기준에 따라 도에서 세부선정 기준에 의거 각 도읍별로 점수를 산정하여 도내 전체 읍중에 15%범위내에서 내무부에 보고를 하며 내무부에서는 전체 읍중에 10%정도 범위내에서 심사 결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의 당초 소도읍개발 장기계획 안에 따르면 금년도에 강원도는 10개시군

11개 도읍에 171억2,200만원을 투자토록 되어 있었으나 4개시군, 4개도읍만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총 62억3,600만원중 사업비의 15%는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시군비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창읍에 대한 소도읍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춘천닭갈비에서 강변도로를 잇는 도로개설 80m와 명비디오에서 약속식당까지 도로개설 110m에 10억원을 사업계획 수립하여 도에 보고 하였으나 금년은 통합시군의 읍만 선정한 관계로 우선 순위에서 후순위가 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며 '97년 사업계획은 평창읍에 이미 지침을 시달해 놓은 상태이며 6월말까지 도에 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두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봉평면 도읍정비사업추진 촉구 및 지연되는 이유와 미철거 농가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봉평도읍정비 사업이 늦어짐에 따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점에 대해 사업주관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스

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업추진촉구 및 지연되는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93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42억2,800만원으로 93년에 10억2,100만원, 94년에 14억4,100만원, 95년에 12억1,3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부족한 사업비 5억5,300만원을 확보 함으로써 예산확보에만 4년이 소요되었습니다.

두번째는 보상협의 및 지장물 철거 지연입니다. 총 보상협의 대상토지는 77명 소유분 145필지, 14,618㎡로 현재까지 71명 소유분 134필지 14,263㎡가 협의가 되고 6명소유분 11필지 355㎡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는 토지는 주유소 이전중에 있는 1명과 상속등기 이행중 1명, 도로부지 불하요구 2명, 외지거주 2명등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중인것은 조속히 마무리 될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외지 거주자에 대해서는 직접 출장 방문하여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대상 건물은 총 58동으로 지금까지 40동을 철거하고 18동이 미철거 되었으며 이중 택지예정지를 분양받은 농가는 11동입니다. 미철거된 건물에 대하여는 7월말까지 모두 철거토록 지속적으로 촉구 하겠으며 끝까지 철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서라도 11월말까지는 본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慶鎭 議員 : 이경진 의원입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하시기로 약속을 하신 부분중에서 체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부분이 농약을 지역농약방에서 살수 있겠끔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도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그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 평창읍의 소도읍 가꾸기를 97년도 사업을 6월 30일까지 신청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는 자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노력에 따라서는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데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직까지는 업무가 사회진흥과에서 도시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약국 소방도로문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3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네, 고맙습니다. 먼저 골프장농약 관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용평에서 지방업자들에게 이것을 구매토록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농약관계의 구매나 수급관계는 산업과에서 업무를 취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평리조트에다 지방업자들에게 이것을 구매토록 여러번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아마 입찰과정에서 외지업자에게 되었고 그 도암면에 있는 사람은 응찰을 안한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평창 소도읍정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6월말까지 도에다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를 하면 도에

서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현지확인올 합니다. 그래서 8월 25일까지 중앙에다 보고를 하고 중앙에서 12월중에 확정올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여러가지로 평창읍은 다른곳보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점수를 획득하는데 약간 불리한것이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인구가 2만이상 읍으로서 인가증가율을 본다던가 이런것이 심사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한일약국 소방도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 답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시행을 할려고 평창읍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도에다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통합시군에만 내무부의 방침에 따라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창읍이 후순위로 밀려서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반영이 안되었는데 금년도에 도 평창읍에서 그 구간이 올라오면 저희

들이 그것을 도에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李慶鎭 議員 : '97년도 사업이 제대로 될수 있겠끔 각별하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알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김두경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金斗經 議員 : 김두경 의원 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보상금을 현재 수령하고도 미철거한 농가가 제가 알기로는 철거할 수 있는 농가가 있는데 아직까지 철거를 하지 않은 농가는 6월중으로 어떻게 철거조치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서 구거나 폐도나 이런 부지문제에 인해서 민원이 있는 문제는 7월중으로 하더라도 현재 작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도하고 끝낼수도 없고 하니까 그것외에 철거할 수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런 농가는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철거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금 30% 미지급 농가가 몇농가라고 하셨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그것은 제가 현황을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 金斗經 議員 :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실음)

○ 金斗經 議員 : 물론 과장님께서 봉평면 도읍정비 문제로 예산문제, 주민협조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애로가 많아서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가 한층더 보여서 금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조기에 마무리 될수 있는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셔서 최선을 다하셔서 마무리 짓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11월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적으로는 9월말까

지 마무리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내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실태 및 현황에
대해서 약간 실무자간에 의견교류가 잘
못되었기 때문에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내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현황중 복지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은 89년부터 91년까지 3년동안
강원도의 특수시책인 농촌잘살기운동 일
환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관내에는 미탄,
방림, 봉평, 용평면에 각 1개소씩 총 4
개소가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15%, 도비가 23%, 군비가
70%를 투자를 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복지회관 설립실태중 인근 시군과 비교
해보면 저희군은 4개소인데 비해 영월은
8개소, 정선은 5개소, 시설확보면에서
보면 다소 미약한 점도 있습니다만, 이
는 추진할 당시 각시군 읍면에 예식장이
없는 지역에만 시설토록 되어 있었기 때
문에 우리군으로서는 복지회관이 없던

미탄, 방림, 봉평, 용평만 설립을 하였
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실적을 보면 지
난해의 경우 우리군은 결혼 및 회갑연
년실적이 142건인데 비해 개소수가 많은
영월은 131건, 정선은 158건에 불과 했
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95년도에 강
원도로부터 봉평복지회관이 상반기 심사
에서 우수회관으로, 용평복지회관이 하
반기 심사에서 최우수회관으로 선정이
되어 각 상사업비를 봉평은 600만원,
용평은 1,000만원을 지원받은적이 있습
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기획실장 신대송
입니다.

유돈문 의원께서 영.평.정 행정협의회

발족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인접된 몇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상호간 갈등의 해소와 지역공동개발등 광역행정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로서 우리군은 지난해 12월 23일 평창군의회 의 승인을 얻어 영.평.정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개최는 상,하반기로 열리는 정기회와 안전발생시 수시 열리는 수시회의로 구분 개최하며 안전은 수시로 실무협의회에서 조정하여 상정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협의회는 지난 3월 23일 영월군에서 개최 하였는데 평창군에서는 평창군민의 가장 큰 숙원인 31번 국도 확포장사업과 벽파령 지방도 확포장 사업, 도민체전 공동개최등 3건을 협의과제로 제출하였고, 이밖에 정선군에서 3건, 영월군에서 4건등 총 10건의 안전을 가지고

개최한바 있습니다.

유돈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밤치제터널 의제는 평창군과 영월군 경계지점으로 미탄면민은 물론이고 정선군민도 많이 이용하는 도로로써 정선군에서 의제로 제안키로 사전에 3개군이 합의해서 정선군 의제로 채택한 것이며 우리군에서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31번국도 확포장 사업은 건설교통부에, 벽파령 지방도 포장사업과 밤치제 터널공사는 강원도에 영월, 평창, 정선군수의 공동명의로 건의한바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행정협의회에서 다시 안전으로 상정해서 논의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돈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劉燾文 議員 :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묻고 싶습니다.

미탄면 밤치재를 터널로 할경우 소요시간이 평창군에서 영월까지는 25분 거리로 단축됩니다. 그러면 평창군과 영월군 거리는 상당히 단축됩니다. 영월군에서 지금 장릉으로 가는 도로를 사용하는것이 아니고 북면 면사무소에서 뒤로가는 영월군에서 영월과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은 약70%로 추진중에 있는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동재 터널로 해서 소요시간보다 더 가까워 집니다. 우리 평창군에서는 우선 예산이 많이 드는 원동재 보다도 밤치재로 영월과 도로망을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마지에서 대상, 대하리로 해서 제천간 도로를 확장하여 더욱 중요한 평창군과 제천과의 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원동재 터널은 이번에 행정협의회에서 영월군에서 의제로 상정을 했던 사항인데 저희 평창군에서

는 그것을 터널로 하지말고 새로 장평서부터 영월까지를 4차선으로 하자, 하는 내용으로 안건이 상정이 되어가지고 그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4차선을 하게되면 자연적으로 선형이 변경되어서 터널을 할경우가 생긴다면 당연히 터널이 될것이고 또한 밤치재는 사실상 국도와 달라서 지방도 입니다. 현재까지 미탄에서 부터 문곡까지 나가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도는 사업주체가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일단 강원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평창군뿐만 아니라 강원도는 산간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국도나 지방도가 굴곡이 심하고 경사도가 높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밤치재터널을 강원도에서 몇번째의 순위로 해줄것이나 하는 문제는 도에서 할 일이겠지만 저희 3개군에서는 그것을 조기에 가능하도록 계속적으로 안건이 있을때마다, 회의가 있을때마다 안건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협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라

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劉燉文 議員 : 기획실장께서 염두에 두시고 우리 평창군에서 미탄면이 광산 폐광지역으로 낙후됨을 생각하셔서 탐치재가 지방도지만 터널로 해서 교통란이 더 좋아지므로 하여금 관광객 유치의 길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유돈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월댐과 관련하여 백룡동굴 천연기념물에 대한 수장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답변한바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평창군에서도 동굴의 형태나 규

모로 보아 개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발견 초기에는 다각도로 개발여건을 검토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건설될 영월댐 수몰지구의 입장에서 개발이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백룡동굴은 천연기념물에 해당되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개발을 하거나 보존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국이 직접관리하고 있으므로 개발이나 보존을 할경우에 사전에 충분한 행정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본 사안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문화재관리국과 수자원공사측이 상호 협의하여 보존하느냐, 개발하느냐 그러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수자원공사와 평창군간의 댐건설을 위한 행정협의를 한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댐건설 이전에 백룡동굴 수장 대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되도록 또한 우리지역에 어떠한 이익이 되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유돈문 의원께서 동굴내부 자원인 종류석과 석순의 활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석순이나 종류석을 다 른굴로 옮겨서 그 모양을 보존하고 개발 하자는 것을 질문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어떠한 방법으로 종류석을 훼손하지 않고 절단해가지고 옮길수 있는지, 또는 옮긴다 해도 어느동굴에다 옮겨야 할지, 또한 옮겨간다 해도 문화재로서 인정될 것인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본에서는 옮긴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한번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동굴은 국가 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서 옮긴다 해도 문화재보호법 등 타법의 제약을 받는등 굳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돈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劉燾文 議員 :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에도 돈녕이산 동굴 개발추진때에 단국대에서 박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문화공보부에서 이것을 그냥 수장을 안시키고 다른곳에다 이전을 하는데 그 이전장소가 흑이나 평창군이 아닐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저녁 주무시고 가시면서, 그렇다면 우리 평창군에서 제가 건의한대로 빨리 손을써서 우리지역에 유치되도록 해야 합니다.

유치될 수 있는 그 굴은 바로 멧둔재터널을 빠져나가고 마차와 정선가는 맞은편에 바람동굴이라는 굴이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박사님을 모시고 들어갔다 왔는데 만약에 정선이 지금 상당히 관광지로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데 정선가는 길이 앞으로 장평31번 국도가 97년도에 올림픽때 4차선화 된다면 미탄 터널이 되었기 때문에 정선으로 가는길 하고 조금전에 기획실에서 발표하셨지만 밤치

제터널로 할 경우에는 영월군과 3개군
 접경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로 하는
 그 개발지 굴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만
 들어가지고 보존을 해도 습기나 온도가
 없으면 개발가치가 없다고 하셨는데 전
 문인인 그양반의 말을 들으면 정선 화암
 동굴에다 지금 거기다가 물을 상수도식
 으로 해가지고 뿌렇게 흐리게 그렇게
 만든답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를 가설
 해가지고 놓으면 빛에 비추면 자연히
 살아있는것 같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봤을때, 그때 250m 들어
 가고 안들어갔습니다. 더 들어갈수 있
 어도 그 양반 얘기가 더 길어도 안된다,
 지나가는 동굴 시간소요는 30분내지 40
 분 보고가야지 더 많이 보고가도 가치가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
 면 평창군에서 적극적으로 공보실에서
 문화부에다 건의를 해서 유치할수 있어
 야 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촉구 드리는데
 실장님께서서는 문화공보부에다 누차 건의

를 하셔서 평창군에다 유치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다른곳으로 옮겨졌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무능하기 때문에 다른곳으로 갔다고 저
 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樂雲 : 이경진 의원 질문 하
 시기 바랍니다.

3. 議事進行發言(李慶鎮)의件

(14時01分)

○ 李慶鎮 議員 : 먼저 의장님께 의사진
 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이경진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 李慶鎮 議員 : 본인이 군정질문 첫
 번째 사항에 '95년도 본의원의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신 내용중
 서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해당
 되는 과별로 답변을 해달라는 질문이 있
 었는데 조금전에 사회진흥과도 마찬가지로

고 기획실에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답변을 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3박4일씩 책을보고 나오는데 담당과에서는 내가 한일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한일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파악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답변을 안하시고 질문이 있으면 하실것인지, 어떻게 이시간을 진행을 해야되는 건지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할려는지 본의원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스스로 판단해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한다고 하셨던 부분에 아직까지 확실하게 종결이 안난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樂雲 : 이경진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잠시 의원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의 사회진흥과에서도 답변이 누락이 되었다가 다시 답변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한 '95년도행정사무감사 내용중 미이행사항

에 대해서 계속사업이 있다면 추진과정, 그리고 문제점과 이유, 향후선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경진 의원이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 관련되는 실과에서는 빠지지 않도록 꼭 답변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후 14시1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時05分 停會)

(14時20分 續開)

○ 議長 金樂雲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전에 이경진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한 답변 불충분 사항에 대해서는 금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준비가 된 실과에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의원께서는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慶鎭 議員 : 알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4. 郡政에關한質問(繼續)

(14時21分)

○ 議長 金樂雲 :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李慶鎭 議員 : 간단하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때 저희들이 기획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광고를 게재할때 관에서 기획하는 경우와 의회나 주민들이 보는각도와 각도의 상당한 부분이 차이점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기획하는 과정에서 의회나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할수 있겠끔 상당부분

참고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는지, 앞으로 적극 주민여론이 수렴될 수 있겠끔 하실 용의는 없

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라 하면 대다수가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를 통한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는 내용이 주로 그 시기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실리게 되는데 특히 예를들어서 우리 평창군을

대표하는 축제인 노성제 행사를 한다던가 할때 저희들이 광고를 내는데 이러한

문제가 금년에 저희들한테 질문을 할때 하나하나 의회와 또 주민과 협의를 해가

지고 광고문을 작성해라 하는 뜻으로 받아 들어서 실제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할

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 의원님들이 여기에 상주해 계시지도 않고, 각 일

자별로 개인 일이라던가 사무로 인해서 사실상 만나기가 힘들고 또 광고라는 것

은 그 시기에 따라서 적시에 광고가 되어 하는데 그러한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

에서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또한가지는

광고라고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관광

팜프렛 같은것도 평창군을 소개하는 어떤 광고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지 이러한 특히 평창을 소개하는 대표적인 관광 팜프렛은 실제상 보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예를들어 사진을 한컷트 찍는다 하더라도 보는이로 하여금 흡족한 사진이 나와야 하고 또 편집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보는이로 하여금 공감이가는 것을 해야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평창 소개 책자를 만들때는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쥐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는 과정속에서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하나하나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렇게 해야 좋을텐데 실지 그렇게 못한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금년도에 만든 관광팜프렛 같은경우에는 타시군에서 평창군 유형으로 가야한다 하는 찬사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저희간에 어떤 그런 행정을 해나가는 과정에 당연히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야되겠습니다만, 그런

여러가지 여건상 하지 못한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李慶鎭 議員 : 앞으로의 계획도 역시 어려우시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집행부에서 판단하는것 하고 저희들이 바깥에서 보는 견해는 이런 시점에는 감자에 대해서 선전을 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도토리묵을 팔겠다는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상품선전하는 시기, 이런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견해차이가 있을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전에 되면 똑같은 돈을 주고 광고를 해도 광고의 효과를 좀더 배가시킬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면 의회에 자주 연락을 하셔서 기획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의 의견도 충분히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가급적이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변명 말씀 같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만,

시기와 때를 놓치면 효과가 없는 문제기 때문에 다행히 의원님들이 계신다면 의원님들의 간담회라던가 모이는 장소가 계신다면 좋은데, 또 이정진 의원님 한 분만의 의견, 예를들어 평창읍민들만의 의견으로 전체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가급적 그런 사안이 발생해서 의원님들이 간담회가 열리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 협의를 적극적으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慶鎭 議員 : 부탁 드리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李永德 : 내무과장 이영덕입니다.

이수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술직공무원 결원충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규정 미활용 이유와 향후 활용

계획과 관련하여 그간은 지방공무원임용 후보자 장학규정과 그에 따른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었으나 기술직 공무원의 수요가 적었고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 공개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임용함으로써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적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90년대 이후 사회가 급변하면서 공직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되어 이직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특히 지방자치시대의 조례로 시군, 시도간에 인사교류의 길이 크게 제안되면서 대부분 기술인력이 교육, 의료시설등 문화혜택이 풍부한 도시지역을 선호하게 되면서 결원발생이 심화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각 시군및 강원도에서는 본 장학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충원이 어려운 토목, 건축등 기술 직렬에 대하여 '96년도 하반기부터 대상자를 선발 지원할 계획이며 우리군은 토목, 건축 각1명씩 선발계획으로 홍보 및 예산부담 비율을 강원도와 협의중에 있고 그에 따르는 소요예산 6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계상되도록 요구중에 있습

니다.

다음으로 평창장학회 정관을 개정 공무원
충원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창
장학회는 아무런 조건없이 성적이 우수
한 학생에게 공평하게 수혜를 주는 장학
금으로 평창군예산에 반영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수혜를 받은 학생은 일정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해야 하는 지방공무원임
용 후보자 장학규정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어서 정관을 개정하여 공무원충원과
연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
료 됩니다.

다음은 우수대학과의 자매결연으로 다각
적인 특채방안 강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
겠습니다.

군에서는 토목, 건축등 결원이 많은 직
렬의 경우 '96년도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한바 있으나 대부분 비전공자가 응
시하였으며 한명도 합격자가 없는 실정
이고 2회에 걸쳐 관련분야 자격증소지자
의 특별채용으로 충원하였으나 우리군에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토목
직2명, 건축직 1명의 충원에 그쳐 토목,

건축 직렬의 결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와 관련 강원도에서는 도내
대학의 관련학과 출신자들을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으로 충원할 계획으로 시군
의 결원을 파악한바 있고 곧 시험이 실
시될 계획이며 또한 군에서도 특별채용
을 희망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삼척산업
대학 4학년 학생 1명도 확보하고 있어
하반기 중에는 대부분 토목, 건축 직렬
의 결원이 충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
니다만, 앞에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수
대학 자매결연과 우리군에 근무하는 기
술직 공무원을 활용한 대학별 홍보를 통
해 도내 각대학출신 토목,건축 전문인력
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결원이 지
속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
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李洙現 議員 : 이수현 의원입니다.
기술직 공무원 결원에 대한 장학규정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

에 600만원을 계상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600만원을 어떻게 활용하신다는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 內務課長 李永德 : 그것은 지금 도에서 희망을 받아서 도에서 각 시군과 일괄해서 도내 대학과 일괄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명분에 대한 600만원을 추경에 요구 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李洙現 議員 : 이상입니다.

○ 議長 金樂雲 : 이정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李慶鎭 議員 : 이정진 의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중에 공무원 창안제도 52건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보는 기준하고 의회에서 보는 기준, 주민들이 보는 기준하고 차이점이 있을수 있다, 이런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과장님께서 가급적이면 그런견해를 없애기 위해서 의회도 창안제도를 등위를 선별할 때 의회 의견이 수렴될 수 있겠끔 하신

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몇건을 하셨는지, 앞으로 그럴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李永德 : 상반기에 1차 실시를 했는데 50여건 들어왔는데 전부 기존 실시하고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예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다시 받아서 결정할때는 의회하고 의견조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慶鎭 議員 : 저희들이 상반기에 탈락한 내용중에 집행부에서는 탈락할 수 있겠지만 의회에서 봤을때 야 이런것은 좋은데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것은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가능성이 있을수 있을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 內務課長 李永德 : 저희가 지금 기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받아서 하반기에 다시 받아서 그때 하기로 하고 상반기에는 창안제도를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慶鎭 議員 : 알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환경보호과장이정수 입니다.

먼저 지난해 11월 16일날 이경진 의원이 질문하신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질문은 평창군 수질 및 생태계보존 대책에 관하여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평창군관내에 하천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창군 관내에는 총 17개 하천에 하천연장이 289.4km에 달하고 있으며 종류별로는 지방하천 1개소에 47.1km와 준용하천 16개소에 242.3km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1일 평균오염물질 발생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하수가 10,840m³, 축산분뇨가 469.5 m³, 산업폐수가 178m³, 분뇨가 54.6m³ 쓰레기가 85.0m³가 발생해서 하루 총 발생량은 11,627.1m³가 되겠습니다.

발생 비율별로 보면 전체배출량의 약93%가 생활하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가 4.3%, 산업폐수가 1.5%, 분뇨가 0.5%, 쓰레기가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생활오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오염물질 발생량에 대한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차장 등에서 나오는 산업폐수는 전량 방지시설로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는 위생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전량 읍면 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는 퇴비화 한후에 초지에 비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규모 축산농가에서는 간이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오수 1일 총 발생량 10,840m³중 농촌오수처리장 4개소에서 하루에 750m³를 정화처리하고 있

고, 나머지 10,090m³는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어 하천수질오염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에 진부면 동산리와 미탄면 창리, 봉평면 창동리 등 3개소에 농촌오수처리장을 설치하게 되면 하루 약 800m³정도의 생활오수를 추가로 처리하게 되어서 하루처리량은 총 1,600m³로 늘어나게 됩니다만, 나머지 9,240m³는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다음은 평창강 생태계 파괴에 대한 보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31일 현재 군에서는 관내하천 28개 지점에 대하여 수중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므로써 물고기 종류와 수소곤충 서식 상태를 표본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기관 단체등의 협조를 얻어서 수중상태를 파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천수질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요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계획 구역과 취락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계획 구역인 평창읍, 대화면, 진부면, 도암면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나머지 4개면은 농촌오수처리장을 설치해 나감으로서 하천 오염 원인을 줄일수 있도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오수처리장을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각 가정과 식품위생업소, 목욕탕,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가정하수 줄이기와 각종세제, 풍퐁이나 하이타이 삼푸등이 되겠습니다. 줄여쓰기 운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광의 스키장과 골프장 건설에 따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식회사 보광에서 사업착공년도부터 공사완료후 최종 5년까지 사업착공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사업승인기관인

강원도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보광의 스키장, 골프장 건설에 따른 '95년도 일시적 토사유출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현재로서는 상황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으나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결과에 따라서 생태계 파괴가 확인될 경우 보광과 더불어서 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겠으며 그전까지는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각종 행정지도를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진 의원의 두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광 관련 우기를 맞이해서 골프장 토사유출방지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본 사업장에 대한 행정적 지도감독에 따른 한계점부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의 협의내용 및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이 사업승인 기관인 강원도와 원주지방환경청에 위임되어 있어 군 자체에서는 행정지도로 그치는 한계점이 있고 또

한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토사로 인한 오염시 단속 규제할수 있는 규정이 사실상 문제점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난해 평창강에는 많은량의 토사유출로 면은천부터 평창읍소재지 하리 지역까지 유입되어 주민생활용수 이용은 물론 농업용수, 주민 여가선용도 못하게 되는등 특히 작년 여름철에는 우리군이 맑은물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까지 흙탕물로 인하여 발길을 돌리는등 주민소득증대에도 지장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군에서는 '95년 4월부터 '96년 5월 31일 현재 까지 약 20회에 걸쳐 행정지도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 설치를 지도하여 현재 골프장 주변에 침사지 3개소, 32,948㎡를 설치 하였고, 식상지구내에도 침사지 3개소 15,024㎡를 설치하고 있으며 특히 부유물질 침전을 위한 응집제를 사용함으로써 토사유출 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보광측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탁류유출 방지를 위한 탁류처리

장 1개소 50,000m²를 약 10억원을 투자하여 '96년 4월 15일부터 착공 '96년 6월 20일 완공을 목표로 설치중에 있습니다. 차후 본 탁류처리시설이 준공되면 토사 유출로 인한 하천오염 문제는 거의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 12월 29일 수질환경보전법 중 일부 개정으로 '96년 7월 1일부터는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하천을 오염시킬 때에는 형사처벌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유돈문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돈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탄면 송어양식장 폐수에 대한 관리감독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대상 1,000m²이상인 송어양식장 현황을 말씀 드리면, 평창읍 관내에 1개소, 미탄면 관내에 7개소, 대화면 관내에 1개소, 용평면 관내에 1개소등 총

10개소가 있으며 '94년 11월 11일 수질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95년 11월 11일부터는 신고대상 송어양식장이 20개소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95년도 송어양식장에 대한 지도.단속 사항을 말씀드리면 상.하반기 각각 1회씩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특별히 적발된 업체는 없었으나 침전지 면적이 부족한 4개소 평창, 원북, 강원, 청옥 수산에 대하여는 시설개선 명령으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중점지도사항으로는 평상시 사육조에서 흐르는 물은 침전지를 거쳐 방류되도록 하고 특히 사육조 청소시에는 세척수가 반드시 침전 시설로 유입되어 사료찌꺼기, 배설물등 찌꺼기가 직접 하천으로 유입되는것을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침전조 청소시에는 찌꺼기등을 반드시 여과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토록 중점지도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좀더 지도.단속 회수를 늘여 하천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행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상 송어양식 시설로 부터 배출되는 최종 방류수에 대한 배출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고 막연히 오염물질을 적정처리하기 위한 침전시설이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율을 입증할 수 있는 시설만 설치하면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강력한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수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피서지 쓰레기의 합리적 수거를 위한 오물투기 단속과 주민 계몽을 위한 대책, 그리고 군내전역이 쓰레기 투기장으로 몸살을 앓고있는데도 실제 단속실적이 부진한것은 단속행정에 누수가 있는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셨고, '94년도와 '95년도의 쓰레기 발생량과 수입금액과의 자료는 분석하였는가, 또 폐기물관리조례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추이를 분기별로 답변해 달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오물투기단속과 주민계몽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투기 단속을 위해 주말이나 휴일 휴가기간에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평창군추진협의회가 공동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주민계몽을 위하여 비지정관광지, 유원지, 국립공원 매표소와 검문소 휴게소 등에서 행락객들에게 홍보 경고전단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민간단체 추진협의회에 34개단체 3,92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분들과 협력해서 행락객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폐기물관련 조례개정으로 오물투기자 처벌기준을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을 이용한 피서지를 순회하면서 안내방송을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하여 신고보상제를 실시하여 신고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내 전역에 쓰레기투기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실제 단속실적이 부진한것은 단속행정에 누수가 있는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지능화로 인해 중
거물 확보가 어렵고 타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투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며
특히 단속공무원이 절대 부족합니다.

다음으로 '94년도와 '95년도 쓰레기 발생
량과 수입금액과의 자료를 말씀드리면
'95년도 1월 1일 쓰레기종량제 시행으로
'94년에 비해 쓰레기 발생량은 2분의1로
크게 줄었으며 반면 쓰레기 발생으로 인
한 세외수입은 4배가량 늘었습니다.

'94년도와 '95년도 발생된 수입금액을 말
씀드리면 '94년도는 쓰레기 발생량이 하
루 40톤 이였고 수입금액은 5,175만1,72
0원 이였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하
루 20톤이였고 수입금액은 연간 2억520
만1,977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관리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추이를 분기별로 답변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월별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95년도
에 2월달에 3건에 25만원을 부과했고,

3월달은 8건에 40만원, 6월달 1건에 20
만원, 7월달 1건에 10만원, 8월달 1건에
1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금년은 5월 2건에 70만원을 부과한바 있
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
해서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보충질
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李洙現 議員 : 이수현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수 있나요?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네.

○ 李洙現 議員 :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은 끝에실음)

○ 議長 金樂雲 : 유돈문 의원 질문하시
기 바랍니다.

○ 劉燉文 議員 : 지금 과장님께서 송어
장 오수처리를 어느 위치에 해야 된다고
봅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최종 방류수

나가는 직전에다 설치해야 합니다.

○ 劉燉文 委員 : 지금 제가 어느 송어장이라고 지정은 않겠습니다.

제일 하류지역에 있어야할 오수처리장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도 송어장 하류와 관계가 없는데 그렇다면 그 오수처리장이 군의 지시에 의하여서 형식적으로 옆에다가 필요처도 않는 물이 나오지도 않는데 해놓았는데도 이것을 오수처리장을 해놓았다고 군에서 지금 봐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장에 송어가 먹지않는 찌꺼기 사료가 가득차 있는데 무엇으로 퍼내야 합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그것은 뜰채라던지 이런것으로 해가지고.....,

○ 劉燉文 議員 : 아니 송어 찌꺼기가 깔아얹아 큰 오수처리장 밑에 가득 찼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인분처리 자동차 같이 배수펌프에 넣어서 빨아올려서 가야 하는데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오수처리를 환경위생차가 몇번이나 퍼가지고 간 실적이 있는지요?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그것은 저희

들이 직접가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 劉燉文 委員 : 그래도 환경과에서 인분처리 하는 차들의 실적이 나와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한적이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그것은 송어양식업자가 스스로 처리해야지 저희들이 그것을 순회하면서 처리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 劉燉文 議員 :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직접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차로 한달에 큰송어장은 한번씩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번도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다 가느냐 하면 야간에 주민이 다 자는데 그냥 개울에 쏟아 붓습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수처리장을 해놓으면 뭇합니까? 그것은 분명히 인분처리 탱크차가 와서 사료찌꺼기를 뽑아내야 합니다. 자기들도 물으면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도 안하는 것을 감독관청에서 얘기를 해야 할것 아

넙니까, 왜 당신들은 한번도 퍼내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한데 몇번했느냐고 물어봐도 물어 봐야지요. 그것을 확인한것이 없다면 집행부에서 관리를 안하는것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앞으로 현지를 확인해서 이 의회가 끝나면 일제 점검을 통해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劉燾文 議員 : 앞으로 큰 송어장에는 한달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했다라는 체크를 환경과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대로 집고 넘어가면 그것은 전부 저널에 개울에 그냥 유입됩니다. 이렇게 하고도 환경과에서 환경오염방지를 한다고 할수 있습니까? 면민들은 일하고 그 흙손을 손발이라도 개울에서 씻어야 되는데 냄새가 나서 도저히 씻지 못할 정도 입니다. 그렇다면 환경과에서 자주가서 송어장 점검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인분차가 퍼가지고 가도 큰 송어장은 한달에 두차 이상이 나와야 됩

니다. 지금 큰 송어장에 하루 사료가 500포에서 600포정도 들어 갑니다. 그것을 송어가 다 먹는가 하면 안먹습니다 밑으로 깔아앉는 송어가 반이 넘습니다. 그것이 다 개울로 들어가면 지금 미탄같은 곳은 송어장 밑의 개울에 들어가 보세요. 사료가 무릅밑에까지 올라 와요 그렇다면 오수처리장 했다는 보람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것은 분명히 지적할수 있는데 한번도 안했다고 환경과에서 지금 보여주지 않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의회가 끝나는 대로 일제 점검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 적절히 조치 하겠습니다.

○ 劉燾文 議員 : 그리고 그 옆에다가 오수처리장을 한곳은 다시 하류지역에 다시하라고 시키세요. 왜 그냥 봐 줘니까? 옆에다 형식적으로 해놓은것도 봐주면 소용이 없는것 아닙니까? 분명히 밑에 오수처리가 될수 있는 그 밑에다 해야 하는데 왜 옆에다 한것을 됐다고 인정을 해줍니까? 그런일을 있으면

안됩니다. 어떻게 면민들이 그것을 보고 탄복을 합니다. 한심스럽다는 겁니다. 감독관청에서 오수처리장을 송어장 밑에다 해야 하는데 옆에다 하는것을 송어장 처리장을 했다고 봐주니 이것을 어떻습니까 라고 군에가면 질책을 많이 하라고 제가 주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번 가 보세요.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네. 알겠습니다.

○ 劉燉文 議員 : 이상입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질문은 시간관계상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李慶鎭 議員 :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돈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말씀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청소하게 되어 있지요?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네.

○ 李慶鎭 議員 : 거기서 과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는가 하면 일일이 하지

못하는 경우의 예로서 우편물이 전달이 안된다거나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일이 점점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대책으로 전산관리 체계를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컴퓨터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디까지 추진이 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은 각 사업장마다 토사유출에 따른 어떤 법적인 단속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라던가 환경오염법이라던가 여러가지 법조항을 보면 상위법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지 못하라는 규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 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하는데 조례제정을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합니다만 저보다는 현실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연구를 해보셨는지, 각 사업장에서 토사유출에 관해서 흙탕물이 나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 그

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제정이 가능할것 같거든요. 하지 말아라, 하라 하는 법도 없는것 같고 저도 역시 좀더 연구할 과제지만 과장님이 직접 업무를 담당하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을 연구해 보셨는지 아니면 추후에 어떤 단속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가능하다면 조례제정이라도 할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알겠습니다. 먼저 정화조 청소를 위한 전산화 작업은 아직까지 저희군만 하는것이 아니고 도 계획과 연계되어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래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 금년도, 내년도 이렇게 금방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도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착수가 안되었습니다. 두번째 각 사업장의 토사유출에 대해서는 금년 7월 1일부터는 공사중이라도, 지금까지는 공사를 하면서 또는 농사를

지으면서 일상적인것을 하면서 사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할수 있는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투기했을때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통상적인 사업활동이라던지 이런것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 1일부터 수질환경보전법이 바뀌어서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李慶鎭 議員 : 그럼 7월 1일부터 가능 합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는 물론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구체적으로 규범 통제를 해서 범위와 한계를 정해가지고 처벌규정을 만들든지 주민에게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어떤 명령을 할때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이것이 범위를 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조례를 정한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저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실정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李慶鎭 議員 : 네. 알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朴靜子 : 가정복지과장 박정자입니다.

답변에 앞서 이경진 의원과 이수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 같은내용의 답변 드림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관내 전체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1동 180명을 유치하기 위하여 국도비 3억7,422만원을 확보, 용평면 장

평리 380번지에 균유지 300평에 건평180평을 건립키로 하고 추가로 '96년도 도비 2억원을 확보하고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추진 년내 착공할 계획입니다.

'95년말 불우노인을 위한 공동숙박시설로 진부면 하진부리 진부장로교회내에 주택 2동에 72평을 5,100만원에 전세로 구입하여 정원 14명에 현재 노인 열분이 숙식을 하고 있으며 '96년도에 평창읍내에 1개동 25평을 전세로 구입하여 영세 불우 무의탁노인 3명내지 7명을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95년도 11월 1일부터 '96년 2월말까지 관내 경로당 25개소를 대상으로 순회 영상자료 방영 및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건강관리교육을 32회, 1,120명을 실시 하였고 읍면 경로당별로 짚신 및 생활용품을 제작하여 다섯종류에 1,174점을 판매 알선하여 621만원의 소득으로 경로당 운영비에 충당토록 하였으며 '96년 11월부터 경로당 순회 영상자료 방영 건강관리교육 짚신 및 생활용품 제작 판매알선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

입니다. 경로당 연간 운영비 및 난방비 포함해서 국·도·군비로 개소당 69만 6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 일거리 제공 명목으로 경로당별 군비 2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타시군에 비해 경로당 운영이 좀더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로당 27개소중 지원이 누락된 3개소는 '95년말 '96년초에 등록된 경로당으로 등록 시기상 '96년도 당초 국도비 계상에 누락 되었으므로 '96년 강원도 1회추경 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국·도비 지원이 안될시에는 운영비 및 난방비를 전액 군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로당 27개소는 신청에 따라서 매년 2-3개소씩 증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인근 시군에 비해 적으므로 마을 공동시설물 즉 새마을 회관등을 94개동을 일제조사하여 타당성 검토 및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수리 한 후에 경로당으로 등록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경로당 수를 늘릴 계획이오며 기존의 경로당중 노후되어 개보수 또는 신축코자 하는 경로당

6개소중에 신청 3개소는 도비 1억5,000만원을 요청중에 있으며 개보수대상 3개소는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경로당 개보수 비용은 94년도에 1,000만원 '95년도에 1,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96년도에도 1회추경에 계상된 2,5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공약사항중 노인휴양시설 설치 유치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4월 11일 재단법인 한국불교 태고원 이사장 이규봉으로 부터 평창읍 지동리 111번지에 45필지 6만여평에 대한 유료 양로원 설치 검토 요청이 있어서 '96년도 5월 19일 유료양로원 설치에 대하여 이상이 없으며 사전에 허가를 득하기 위한 안내를 명시하여 회시하여 주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설치에 대하여 신청을 한적이 없습니다. 향후 노인복지를 위한 양로, 휴양시설에 대한 유치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수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27개소는 신청에 따라서 매년 2-3개씩 증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인근 시군에 비해 경로당 수가 적으므로 마을공동 시설물 94개동을 일제 조사하여 타당성 검토 및 소요예산 판단 하여 수리한 후에 경로당으로 등록하려 함으로써 경로당 수를 늘려 노인들이 여가를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연간 운영비 및 난방비 포함 국, 도,군비로 개소당 69만6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일거리 제공 명목으로 경로당별 군비 2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근군에 비해 경로당 운영이 좀더 나을것으로 판단 되오며 기존의 경로당중 노후되어 개보수 또는 신축코자 하는 경로당 6개소에 대하여 도비 또는 군비를 확보하여 개보수 또는 신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앞에서 말씀드렸던것과 같이 경로당 개보수 비용은 94년도에 1,000만원 95년도에 1,000만원이 투자 되었고 '96년

도에는 1회추경에 계상된 2,5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95년도에 11월부터 시작한 관내 경로당 25개소를 대상으로 순회 영상자료 방영 및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건강관리 교육을 32회에 1,120명을 실시하였으며 읍면 경로당별로 짚신 및 생활용품을 제작하여 다섯종류에 1,174점을 판매 알선하여 621만원의 소득으로 경로당 운영비에 충당토록 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미 경로당에 운영하는 민속생활용품 전시관 확장 계획으로 도비 4,000만원을 지원 요청 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은 현재 4개소, 놀이방이 3개소 병설유치원이 17개소, 사립유치원이 4개소, 총 28개소에 수용아동 846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해당아동 3,509명에 24.1%를 차지합니다.

97년 어린이집 증설계획으로 대화면에 2개소, 여기에 수용아동 140명이 예정됩니다. 진부 1개소에 50명, 도암1개소에 70명, 사립유치원이 1개소에 120명

이 수용될 유치원이 증설되면 수혜아동이 1,226명으로 35.5%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통한 질높은 교육을 보급하고 향후 종합적인 놀이기구와 선진교육 자재를 지원하여 더 나은 보육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李洙現 議員 : 이수현 의원입니다.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개축할 예정으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볼것 같으면 예를 들겠습니다.

대화면 같은곳은 지역실정을 제가 잘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마을회관 14개소가 거의다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경로당으로 개축해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거의다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금 개소수가 상당히 약한 인근

군에 비교해서 약 3분의 1밖에 안되는데 개소수를 늘리기 위해서 국도비 지원을 적극 요청을 해서 물론 군비도 투자가 되어 하겠지만, 노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장평에 추진되고 있는 평창 노인복지센터 같은 커다란 규모 말고 곳곳에 노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소수를 늘릴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家庭福祉課長 朴靜子 : 앞으로 마을에 회관이나 다른 시설이 없는곳은 저희들이 신축으로 나가고 이것은 저희들이 너무 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개보수 해서 사용을 한다면 신축할 예산 몇개동을 할것을 가지고 많은 시설이 일제히 수리가 될수 있을것 같아서 저희들이 5월달부터 이 마을회관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장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 李洙現 議員 : 네. 알겠습니다.

타당성을 조사를 하셔서 개축할 부분은 개축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신축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樂雲 : 추가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후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時20分 停會)

(15時30分 續開)

○ 議長 金樂雲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이어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 들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時漢 : 산업과장 김시한입니다.

이경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원주택개발 추진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군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전업농조성사업을 96년도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투자규모가 크고 지원을 받을수는 없고 군비의 투자가 전체적으로 투자되어야 함으로 또한 분양도 전망이 현재까지 불투명하여 오히려 군정재정압박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신중히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현재 사업추진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각 읍면의 후보지를 10여개소를 조사 완료한 상태로 추후 전망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에 비해 '96년도에 투자사업비 감소요인은 전년도에 대규모 투자사업이 '96년도에 없는사업이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포장센터 24억5,000만원, 김치가공공장 6억4,000만원, 메

밀가루 가공공장 4억원, 1군 1명품사업 2억원, 시설채소유통조사 7억8,000만원 공동퇴비제조장 2개소 9억6,000만원등으로 총 54억3,0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 미탄, 방림, 대화면은 홍보가 미흡하여 사업신청을 적게 한것이 아니라 지역여건과 농사기술 자본능력등이 대화 이북지역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부 대규모 농업시설인 유리온실 가공공장, 청과물 유통시설등 막대한 사업비가 지원되므로 대화 이남 지역에서는 대규모 사업이 적은관계로 다소 투자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평창을 담당하면서 기회가 있을때 마다 출장하여 상담 및 계도 활동을 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담당읍 관리에 충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평리조트 불법전용처리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평리조트는 20년전에 개발할 당시 도

암면 용산리 516번지의 8필지 12,580여평의 농지에 대하여 호박들을 적치하거나 나무를 식재해 불법전용한 사실을 적발하여 법에따라 조치한바 있습니다. 본건을 20년이 지나도록 반려치 못한 이유는 불법전용한 농지의 위치가 용평스키장 후미쪽에 임야와 연결되어 있어 20년생이상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군 전체 지역의 농지를 현재 군청 담당자 1명이 농지전용허가등 농지관련 민원서류 처리에 급급하다 보니 실제 불법농지 단속에 소홀한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용평쪽 입장에서 볼때는 원상복구 지시가 무리한 행정명령이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법조항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때 군으로서는 정당한 행정지시라고 판단되며 이같은 사실은 군행정 책임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유로서 군이 고문변호사와 협의하거나 자문을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추후 본건이 행정심판등 법적

문제화 된다해도 본군의 결정이 정당함이 입증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농림수산사업 확정공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분야에 170개 종류의 모든지원사업은 농수산부훈령 제834호 농림수산사업 실시요령에 의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총 118개사업에 208억원이 지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통합실시요령에 의해 각 읍면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평창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업농 지원사업인 쌀전업농가, 밭작물 전업농 처럼 동일사업 분야일 경우에 중복지원을 할 수 없으나 다른 일반적인 사업에 대하여는 능력있는 순수농민이 신청할 경우 중복지원이 가능함으로 특혜를 주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부담에 대해 투자 확인과 사업지도 및 관리에 있어서는 보조비율에 따라 자부담은 통장에 예

치후 사업을 시행하고 결산보고서에 반드시 사업계획서와 영수증을 각종 증빙서등 첨부케 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완벽한 시공을 위해 현지도 위주로 사업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李慶鎭 議員 : 이경진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담당부락이 평창읍으로 알고 있습니다.

○ 産業課長 金時漢 : 네. 민방위과장 하고 들입니다.

○ 李慶鎭 議員 : 이 사항은 미처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과장님들이 담당부락에서 해야 할 활동이라던가 범위 이런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것이 있습니다.

○ 産業課長 金時漢 :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읍면에 대한 행정전반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 李慶鎮 議員 :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모임과 행사에 수시로 참여해서서 군정이나 국책사업을 설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 産業課長 金時漢 : 그러니까 번영회나 이런 모임은 초청을 해야 하는데 초청을 하지도 않은데 가서 얘기할수가 없습니다. 그런곳은 사실 무슨말씀을 질문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들이 다 담당 읍면이 있습니다. 행정전반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거지요.

○ 李慶鎮 議員 :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과장님이 어떤 번영회라던가 이장협의회라던가 모임 단체에서 초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서 교육을 시킨다거나 국책사업을 설명하실 필요성을 못느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하는것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95년도부터 2004년까지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투자되는데 그 기회를 가장 잘아시는 분이 산업과장입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2004년을 놓친다면 '95년부터 2004년까지라는

특정한 기간을 놓친다고 하면 우리 평창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낙후될 텐데, 그것을 가장 잘아시는 분이 번영회라던가 이장협의회라던가 초청하지 않는다고 해도 잠이 안올정도로 나가서 중대한 문제에 너희들이 나를 초청하지 않았지만 시급하게 해야할 일이다, 이런 차원에서 나가서 설명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평창군이 '95년부터 2004년까지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투자되는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별하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더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한가지 용평리조트 불법전용에 관해서 과장님 답변으로 들어보면 소송을 해도 승소할수 있는 자신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 産業課長 金時漢 : 승소할 자신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법적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거지요. 그것은 법에서 판단할 겁니다.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것은 아니지요.

○ 李慶鎮 議員 : 그런데 그 의견이 제

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의견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건의한 내용중에서 과에서는 이러이러한 3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이 방향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예상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분명히 행정 최고책임자에게 말씀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문제로서는 행위 시점이 약 20년전에 이루어졌고, 공소시효가 3년인데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시 법적 문제가 발생된다 라고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가 있는데도 한마디 의논과 상의가 없고 저희들이 답답해서 행정소송을 했던 내용들을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군 행정의 중요한 문제가 수반될 수 있는 사항인데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어떤 자문을 받았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것 같아서 어떤 자신감이 있는걸로 판단이 되는데 향후 행정소송이라던가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루어져서 우리군 재정에 어떤 손해에 관한 부분은 없겠지만 행정력의 실추라던가 명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과장님도 역시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각과 반성을 충분히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해가는 과정을 진도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시다면 의회쪽에 수시로 연락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産業課長 金時漢 : 알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가능하면 일문일답식 질문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쪽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姜慶錫 : 지역경제과장 강경석입니다.

이경진 의원께서 지난해 제36회 임시회의 의사와 제37회 정기회의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용자금 상환대책입니다.

농공단지 용자금 상환금액은 '96년 5월말 현재 총 9억9,600만원으로서 원금이 8억2,300만원이고 이자가 1억7,300만원입니다. 상환조건은 5년거치 5년균등 분할 상환으로 2001년까지 상환기간이며 년 8.5% 이자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96년 5월말까지 상환실적은 총 9억9,600만원중에 82%인 8억1,600만원을 상환하였고 2001년까지 상환해야 할 잔액은 1억8,000만원입니다. 내년 '97년부터 원금을 상환하게 되는데 폐업된 업체는 2개업체로서 현재 대체입주업체를 상환하게 되면 용자금 상환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입주업체 공장건축 기준면적 미확보 업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농공단지는 당초에 17개업체가 입주를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조업종별 공장용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을 확보한 업체는 15개업체이고 미확보된 업체는 2개업체로서 강원프라스틱 주식회사와 코코마 2개업체입니다.

기준 공장면적 미확보 업체인 2개업체에 공장면적 확보현황은 강원프라스틱은 부지 11,389㎡에 건축면적 1,837.5㎡로 기준을 30%에 크게 못미치는 16%를 확보해서 4,678㎡의 용지가 기준초과 되어 있으며 또한 코코마 주식회사는 부지 6,138㎡ 건축면적 980.36㎡로 기준의 45%에 역시 16%만 확보되어 있어 3,742㎡ 용지가 기준초과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공장 면적 미확보 업체인 2개업체는 현재 경영정상화가 어려워서 공장을 다시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 인수업체

를 물색중에 있는바 코코마는 범양에서 현재 인수준비중에 있고 강원프라스틱은 현재까지 인수업체를 미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현재 2개업체의 공장면적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 한것으로 판단되어 새로이 사업을 인수할 업체에 대해서 제조업종에 따른 기준공장면적을 확보토록 입주승인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설명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감사때 지적을 하셨는데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우리군의 지역특성과 기업유치의 입지적 여건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홍보자료 및 우리군의 실태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지난해에 기업유치 설명회로 95년 11월 28일 강원도공영빌딩에서 부시장, 부군수, 도의원, 금융기관장, 상공회의장, 기업관계자등 52명이 참석해서 한자리에 평창군관내 실태등 유인물을 배부하여 참석자에 대해 설명을 한 바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 중앙회의 주관으

로 중소기업 회관에서 서울에서 '92년 12월 1일날 수도권 공장과 도 연구기업체 각 시도에 300명이 참석해 기업유치 설명회에서 우리군의 지역실정과 지리적 여건등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우리고장 기업유치 홍보를 위하여 내고장상품 홍보 책자들을 첨부 발간하여 도내는 물론 전국에 홍보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근로자아파트 마무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근로자아파트는 주진리606-1번지에 1,000평의 부지에 15평형 80세대를 건축하고자 농공단지 운영협의회를 조직하여 협의회 주관으로 국고보조 4억4,000만원과 용자금 9억6,000만원, 자부담 3억2,000만원을 포함 총 17억2,000만원을 노동부로 부터 지원을 받아 91년 5월 착공하였으나 시공회사의 잇단 부도와 농공단지협의회장이었던 정익통상 대표의 도산으로 인해서 아파트 마무리공사가 불투명하게 되자 현재 90%의 공정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내의 우진ACT의 신병순을 농공단지운영협의회장으로 재구성 하고 공사비 집행잔액 4억9,900만원으로 최종 시공회사의 광암건설과 우선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원칙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나 당초 아파트 입주예정회사의 회사가 휴.폐업으로 의해서 휴.폐업한 업체에 대해 배정물량을 변경하여야 되기 때문에 우진ACT가 50동, 코코마가 10동, 거성개발이 10동, 프린트가 10동등 80동으로 해서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동부에 변경승인을 신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우진ACT가 1개회사에 너무 과다하게 물량을 책정하였다 하여 지금현재 책정신청된것이 불투명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입주희망자가 있으면 분산해서 책정해서 다시 올려야 하는데 현재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자동기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입주희망자가 없어서 신규 또는 대체업체를 저희가 빠른시일내에 지정시기를 택해서 금년에 마무리 하도

록 특별한 강구대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돈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폐광지역특별법안 지정에 관해서 미탄면이 폐광지역에서 제외된 이유와 개별특별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집행부의 앞으로의 실천의지와 그다음 '95년도 군정질문답변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그 내용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요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촉진지구가 먼저 지정이 되어 합니다. 그런데 폐광지역은 1988년도에 1인당 산업선상중에 광업 점유율이 100분의 5이상인 시군안에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폐광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5안에 미치지 못해서 지역여건상 지정이 되지 못하고 다만 태백, 정선, 사북, 고한등 삼척, 도계,

영월 상동읍등 광업지역세가 큰 지역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군은 이에 따라서 군에서 지난해에 11월 16일 36회 본회의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8개 시군중에 탄광지역을 포함한 11개 시군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평창군은 3차년도인 97년도에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있고 또 국고보조 지원이 가능한 계획사업으로 신청한 청옥산일주 순환도로개설 17km에 80억원, 미탄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20억원, 그다음 산초가공공장 시설 2개소등 총 140억원을 투자할 사업으로 신청해서 현재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화면 신리 대화산업의 무허가 골재를 사용한 레미콘 제조회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레미콘 제작공장은 공업배치법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장의 합리적인 배치를 지도하고 원활

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만 공업배치법상에 규정되어 있을뿐 레미콘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무허가 골재를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 동법에 규정한 사항이 없어서 이에 처리를 법무담당관실에 질의하여 처리 방향을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겠아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끝에실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돈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劉燉文 議員 : 유돈문 의원입니다. 폐광지역 지정에는 전혀 희망이 없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姜慶錫 : 네. 폐광지역은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 劉燉文 議員 : 그럼 촉진지구로 평창군이 97년도 지정되어 지원이 됩니까?

○ 地域經濟課長 姜慶錫 : 97년도에 지정하도록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劉燉文 議員 : 그것은 틀림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경석 : 네. 계획이 되어 있는것은 틀림이 없고 다만 '97년도에 지정할 당시에 저희가 이미 사업계획을 신청한것을 수정할 부분이나 변경할 부분이 있을때에는 그때에 다시 변경하도록 그러한 사항은 있습니다.

○ 劉燉文 議員 : 그럼 강원개발연구원이 확실히 모르고 군에와서 얘기한겁니까?

○ 地域經濟課長 姜慶錫 : 그전에는 오진모 원장님께 제가 질의를 할때 오진모 원장님께서 그때 각 시군에 지정계획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해 드렸고 그것이 끝난다음에 제가 기획실장 보고서 평창군이 지정계획이 '97년도에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미스프린트가 하나 있었어요. 2000년도 이후의 사업계획을 지금 준비중에 있다는 얘기를 이후자를 빼놓고 2차년도의 것만 하는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미스프린터가 되어서 그렇게 오해가 되었던 겁니

다.

○ 劉燉文 議員 : 촉진지구로 꼭 되겠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姜慶錫 : 알겠습니다.

○ 劉燉文 議員 : 이상입니다.

○ 議長 金樂雲 : 추가질문 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李基樞 : 산림과장 이기춘입니다.

이수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화면 신리 대화산업개발 규석광산 허가처리의 내용에 관하여 산림법 위반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향후 원상 복구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화면 신리 규석광산은 '91년 3월 5일 최초로 광산개발을 위한 채광계획 인가를 받아서 개발하고 있으며 '94년 12월 16일자 장평광업 ●●●●● 대화산업

개발중 이명의 에게 중앙권이 설정되어 개발하고 있는 장소 입니다.

광산개발 필요시마다 산림훼손변경신청에 따라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산개발로 생긴 폐석을 채취허가를 받지않고 무허가 폐석 채취 하였다고 하여 산림형질 변경을 취소할수는 없습니다. 광산개발 채광계획의 인가가 존재하고 있는이상 산림형질변경 허가는 취소할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임지는 신리214번지로 균유림으로서 거기에서 광산개발에 따라서 생긴 폐석을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은 '96년도 3월 23일자로 계약을 해가지고 대금은 4월 20일날 완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매각한것 이전에 이용된 폐석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대금을 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원상복구 계획은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신청시에 제출된 서류에 복구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복구계획서에 따라서 복구토록 하고 중간복구가 필요할때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중간복

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불가능 상태이고 광산개발이 종료되거나 중단되었을때에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 질문 하십시오.

○ 李洙現 議員 : 이수현 의원입니다. 지금 산림과장님께서 무허가골재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작년도에 허가지역외에 무단훼손한 사실을 가지고 허가취소 대상이 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산림법에 위배되는 사항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李基樞 : 작년에 무허가 산림형질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건처리해서 영월지청에 송치가 완료가 되어 있고, 그것은 주 목적이 광산개발에 따

른 채광계획 인가가 난 지역이기 때문에 산림법은 거기에 대한 채광계획을 채광을 한 목적에 부수되어서 도와주는 법입니다. 거기서 산림법에 규제되어 있는 것은 해지해 주는건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입안했다 해서 사건처리만 해야지 취소한다 하는 자체는 광산을 못하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 李洙現 議員 :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법상 무단훼손 한자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할수 있지요?

○ 山林課長 李基樁 : 이것은 그 개념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광산개발을 목적으로 한것이지,

○ 李洙現 議員 :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 광산자체가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광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법을 따라갈수 밖에 없다라고만 주장을 하시는데 우선은 허가취소 대상에 있던 시기를 놓친것을 본의원은 상당히 안타깝

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무허가 반출골재, 전년도에 반출된 골재에 대한 추징을 하신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식으로 어떻게 골재량을 판단하실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李基樁 : 여기 신문이나 MBC 방송에 보도된 내용대로 사건을 입건을 해가지고 영월지청에서 사건지휘를 받아서 지금 수사중에 있습니다. 수사를 철저히 해서 그 이전에 이용된 폐석에 대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전부가 대금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洙現 議員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樂雲 :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6時00分 停會)

(16時20分 續開)

○ 議長 金樂雲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洪基杓 : 건설과장 홍기표입니다.

먼저 이경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부교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농어촌도로 평창 B도 203호선으로서 현재의 중부교는 교폭협소는 물론 71년도에 가설한 노후교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교 하류에 신규교량설치를 94년도부터 현안사업으로서 상부기관에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지원 신청하였으나 농어촌도로상의 교량으로 중앙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요사업비 과다로 단기간 내에는 투자가 어렵고 예산지원이 불투명 하므로 본 도로는 군도 1호선으로 연장 승격요청

내무부 검토중에 있으며 군도 승격후에는 교통소통 대책사업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교량이 165m, 교폭이 15m, 접속도로 300m로서 소요투자사업비가 39억5,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경영소득사업으로 마지지구 골재채취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하천골재중 민수용 부분에 대하여는 경영소득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16개소에 12만9,914㎡에 대하여 1억1,864만원의 소득을 목표로 골재대행업체가 선정되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인 마지지구의 하천골재 채취에 대하여는 약 33,300㎡중에 미보상된 사유지가 16필지에 15,42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지구의 하천골재 채취여부는 골재부존량에 따른 수익성과 사유지 매입의 경계선등을 분석해서 다른지역보다 경영소득사업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주진~방림간 군도 3호선 개설 조기착공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14개 노선중에 군도정비계획에 의거 도로정비 양여금 예산으로 매년 2~3개 노선에 8km정도를 확.포장 하고 있으나 정비계획상 본 도로는 '99년도에 연장 1.6km에 사업비 8억4,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0년 이후는 노선별 우선 순위에 의거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돈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42번 국도 확.포장 관련 편입토지 보상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42호선 확.포장 공사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 발주와 동시 직접 보상까지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그 당시 미보상 토지는 소유자 불명의 미등기 토지였습니다. 그러나 사업당시 미보상토지에 대한 보상을 할수 있는 국도체불용지 보상제도가 있으므로 미보상 토지에 대한 읍면장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하여 건설교통부에 소요예산을 요청하면 보상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탄면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탄면 창리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0.331㎏로서 2차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하였던바 '95년 10월 19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그 절차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금년도 말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31번 국도 4차선 확포장에 관해서는 나중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4호선의 2차선 확포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촌~대화간 군도 4호선은 전체 연장이 27.4km로 지난 '94년 7월 30일자로 군도로 승격되었으나 군도 노선이 14개 노선으로 미포장된 연장이 많아 전체 노선에 대한 우선순위에 의거 군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99년도까지는 기 확정된 노선으로 투자 하여야 함으로 순위를 앞당기는 일은 어려우나 지역여건 변동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노선은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기계획 재수립시에 검토하여야 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군도에 대한 확.포장사업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군비부담금 30%만 확보가 되면 가능하나 중앙에서 배정된 양여금이 워낙 적은관계로 많은 노선을 일시에 투자할 재원이 부족함을 말씀드리며 본 도로를 지방도로 승격하여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15조에 의한 지방도승격 대상 노선이 아니므로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만 추진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방도승격요건은 도청소재지로 부터 시 또는 군청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시 군청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비행장, 항만, 역을 상호 연결하거나 이와 밀접한 도로등이 지방도의 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96년도 봄마무리로 시행중인 영농관련 사업은 농지경지정리 3개소와 밭 기반정비 1개소, 수리시설 수해복구 및 개보수사업등 32건을 추진중에 있으며 '96년도 가을착수 사업으로 농지경지정리 1개소와 밭기반정비 3개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경지정리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농지개량조합 연합회에 감독을 위탁하여 항시 현장에 상주함으로서 부실공사 예방 및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혜택주민 개인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요구사항이 많아 경지정리 첫해에는 일시에 모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모든기반정비가 완료되어 6월 5일전에는 모내기가 마무리 될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지반이 나쁜 단지는 별도의 장비를 투입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있으나 사업량에 비해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하여 현지 지도감독이 미흡한점에 대하여는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사업발주는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상안미3리 미날교가설 공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화면 상안미리 농어촌도로 대화 206호 선상에 위치한 노후교량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그동안 준비재원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96년 1회추경시 설계용역비와 시설비 3억원을 확보하여 추경승인후 전체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본 사업에 대하여는 도비를 지원요청중에 있으므로 도비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사업마무리가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사업량은 교량이 120m에 교폭은 7m, 예산투자사업비는 11억5,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 산업개발 골재사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골재수급계획상 포장용 보조기층에는 모두가 하천골재로 충당되어 있으나 계획량에 비하여 채취량이 작아 부족량을 충당하기 위하여 본 골재를 사용하였기에 수급계획에는 별 차질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실공사 우려에 대하여는 현장안이 파기전에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시험을 거쳐 합격판정후에 사용함으로 부실공사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李洙現 議員 : 이수현 의원입니다. 군도 4호선 개수리에서 대화3리로 연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서 사업계획 내용을 수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중기계획 재수립 할때 방향을 하신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중장기 계획을 언제 수정을 합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답변사항에 지역여건변동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노선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재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여건 변동에 대한 내용을 내무부와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재수립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李洙現 議員 :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골재허가 업체의 수급계획에 골재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차질이 없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계속 앞으로 규석이 허가처리 되어 계속 반출이 될 때에는 가격의 덩핑문제가 대두될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으십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산림골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골재채취법상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 李洙現 議員 :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가격조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골재허가업체들의 골재를 계속 규석광산에서 앞으로 산림골재로 반출을 한다면 지금 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는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골재업자들이 타격이 없겠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 建設課長 洪基杓 : 그런데 요먼저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에 가서 알아보니까

하상골재의 가격보다 그 가격이 더 비싼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가격은 더 비싼데 저희들이 골재수급계획은 우선군의 수익성을 감안해서 하상골재의 수급계획을 완전히 세운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골재의 수급계획을 세워야지 그 골재를 먼저 수급계획을 세워 놓으면 저희들 세입에 어떤 차질이 오기 때문에 하상골재 수급계획을 먼저 세운다음에 그것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李洙現 議員 : 그럼 지방세 징수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 建設課長 洪基杓 : 네.

○ 李洙現 議員 : 참고로 더 비싸다고 말씀 하시는데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나게 싸게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樂雲 : 유돈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劉燉文 議員 : 유돈문 의원입니다. 지금 42번 국도 확.포장시에 토지보상을 과장님께서 읍면장의 미보상 확인서를

첨부해서 건설교통부에 신청을 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네. 맞습니다.

○ 劉燉文 議員 : 그러면 민원인이 군에 몇번 왔는데 그렇게 안내를 하시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그 민원인이 원주청에도 갔었습니다. 원주청에 가니까 원주청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분할되기 직전 토지대장 등본만 가지고 오면 즉시 준다고 했습니다. 군에서 그것도 안해 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 그렇습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42번 국도에 미보상 토지에 대한 민원은 저희들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 劉燉文 議員 : 그럼 어디에 갔었는지 전혀 안된다고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첨부하면 된다면 벌써 찾았을것 아닙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저희들이 국도채불용지에 대한것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 劉燉文 議員 : 알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 議長 金樂雲 : 이정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李慶鎮 議員 : 이정진 의원입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군청 진입로에서 중부교량 사이 인도 문제를 말씀을 드렸을때 당초 이 사업을 군비로 투자해서 한번 확장해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정선국도유지에다 확장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확장건의를 하셨는지 또 국도유지에서는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촉구해서 빠른 시간내에 할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골재채취를 조사 판단해서 필요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다면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은 보상 문제도 그렇고 지역현안도 여러사람들이 시급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언제까지 조사를 하셔서 어떻게 하실것 인지를 구체적으로 날짜를 대충이라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중부교량 문제를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정확한 답변이 부족한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우리지역 현안사업으로 보면 8번이 평창교가설 165m 39억5,200만원이 8번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번이 미날교 가설로 해서 올해 설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11번 봉평상수도 12번 진부상수도 13번 대화쓰레기 14번 미탄쓰레기장, 제가 말씀드릴리는 것은 중부교량은 중기계획에다 반영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중기계획은 몇년부터 몇년사이에 실시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洪基杓 : 먼저 군청 진입로에서 세차장까지 인도 설치에 대해서는 본 도로는 정선국도유지가 관리하고 있는 국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선국도 유지사무소에다 건의를 한바 있으나 설치를 하겠다는 확답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차 건의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지구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지적도를 가지고 전

부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에 따라서 6월 한달중으로는 다 나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여기서 말씀드릴수 없고 6월 한달동안 이내에는 전부다 경영소득사업으로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중부교 가설공사에 중기계획은 '97년도에서 부터 2001년까지가 중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무부에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군도승격 후에는 교통소통 대책 사업으로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정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李慶鎭 議員 : 그러면 제가 알아듣기에는 '97년도에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이상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중부교량이 설계나 다리발 하나라도 착공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하시는 걸로 이해 해도 되겠습니까?

○ 建設課長 洪基杓 : 그렇습니다.

○ 李慶鎭 議員 : 감사합니다.

○ 議長 金樂雲 : 추가질문 하실 의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權純喆 : 도시과장 권순철입니다.

먼저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상수도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상수도 시설 및 운영상의 문제로 평창읍민에게 불편사항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평창상수도는 1971년 10월 30일 간이시설 형식으로 200톤 규모로 시설되어 운영중 수량부족 현상이 발생되어서 1977년 1,000톤으로 확장하고 93년에 4,000톤 용량으로 증설 확장 하였습니다.

그후에 맑고 깨끗한 수도물 공급에 기여코저 투자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94년에 6,300만원을 투자해서 2,000톤 규모의 고속용집침전기 설치공사를 하였고 '95년도에 3억원을 투자해서 167면의 취수보 설치공사와 '96년에 9,600만원을 투자해서 2,000톤 규모의 고속용집침전

기 설치공사를 '96년 7월 16일 준공예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원감사 수감 및 재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원 처분지시에 의거해서 본군에서 시공회사인 유성종합건설로 하여금 '95년 11월 17일 현 상수도 위치에 재시공중 '95년 12월 23일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취수원을 여만리로 이전하려는 이유에 대하여는 감사원감사 처분지시에 의해서 재시공중에 있는 현위치는 후평뜰에서 발생하는 농약물등이 유입되는등 하천 복류수가 없는 석회암이 풍화된 진흙층으로 형성되어 있고 하천 복류수의 취수가 부적합한 지점으로 평창읍 번영회에서 또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취수원을 여만리 과수원 앞으로 이전코자 합니다. 따라서 여만리 과수원앞 지점은 항시 샘물이 흐르는 지점으로 해서 수량이 충분하고 평창강 분류와 별도로 맑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를 위한 최적지로 판단이 됩니다.

여만리 파수원 앞으로 취수원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96년도 제1회 추경에 4억2,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본 사업비는 재시공 부분을 제외한 도수관로 및 취수보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동 사업의 완료시 평창상수도와 관련된 제반사항이 원만히 해결되면 항상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원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이상훈의 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급수시설 개선건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군내 간이상수도는 총 105개소, 이중 96개소가 계곡수 및 용천수 이고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는곳은 9개소이며 '94년 7월부터 간이상수도가 수도시설로 포함되면서 사회과에서 도시과로 업무이관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105개소중에 지난 3,4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38개소가 시설보수가 시급한것으로 나타나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여 일부는 보수하고 잔여는 '97년에 국고보조사업비를 신청중에 있으며. 년차별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표수의 음용수 활용에서 지하생수로 개선건에 대하여는 먼저 지하수 개발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흙물유입 및 각종세균, 전염병의 오염우려가 적어서 양질의 수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수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간오지에도 설치가 용이 합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과도한 시설비와 각종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의 이용으로 인해서 물 사용이 증가할 경우 동력비 등 관리비가 증가하며 취수원 인근에 계곡수 및 우물등에도 수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지하수 개발 당시에는 수량이 많으나 몇년후에는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새로운 취수원을 개발해야 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 개설된 시설은 현 상태대로 사용하고 향후에 간이상수

도 신설지는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평창군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조정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공동시설유지관리조례 제17조의 보호수의 규제 및 제18조의 보수비의 부담에 대한 규정은 공동급수시설이 간이상수도 수도시설에 포함되어 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96년 하반기중에 평창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제정해서 '97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조례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조례가 제정되면 간이상수도 시설의 유지보수 등 시설의 운영일체를 군수가 관리하게 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단위별로 사용자대표협의회를 설치하여서 수질관리 및 시설관리를 위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진 의원님께서 지난 36회 임시회의시 군정질문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질문사항은 도시계획구역내 미보상 토지는 얼마나 되는지, 또 미보상 공공용지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군에서 공공용지 보상계획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도시계획 도로는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도암동 5개면에 총303건에 109.48km, 이중 개설된것은 40건에 23.918km, 미개설된 도로는 254건에 85.561km 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군에서 예산이 허락된 부분은 기 설치했지만 군에 예산이 허락되지 못해서 아직 개설되지 못한것이 많이 있는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한 도시계획구역내에 도로에 편입되어 있으면서 보상을 못한 현황은 미보상 용지는 93필지에 6,108㎡입니다. 그런데 '96년도의 보상계획을 우리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42필지에 2,930㎡입니다. 이중에서 소요예산이 금년에 3억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감정평가에서 실시중이고 감정평가가 끝나면 '96년 6월부터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마치고 다른 안건은 평창 상수도과 같이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李相薰 議員 : 이상훈 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군정질의 답변에서 평창읍 상수도 투자내용 액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평창상수도 시설공사비에 15억 7,400만원, 그 이듬해 '94년도에 고속용 집침천기시설공사 6,300만원, 95년도에 평창상수도 취수보 설치공사에 3억300만원, 또 금년도 '96년도에 고속용집침전기 1기 설치공사에 8,800만원 해서 약 20억

2,917만6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또 금년도 추경예산에 4억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상수원을 여만리에 수원지를 거기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1,100m가 되는 파이프를 매설하고 또 전 시공방식으로 취수보 32m를 설치해서 평창주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겠다는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어제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만, 다행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마음이 좋아서 원안대로 통과 시켜 드렸습니다. 또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약 5년에 걸쳐서 추진한 상수도 사업이 왜 이렇게 하자가 발생되었느냐, 심지어 내무부의 감사까지 받아가면서 지적사항을 보면 평창군에서는 상수도 시설공사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을 본의원이 말씀을 안드릴수가 없습니다. 내무부 감사에서 부당 시공된 공사 금액이 약 1억6,000만원정도, 이것은 엄연히 설계는 설계대로 재시공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시공을 했는지 안했는

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기 때문에 시간관계로 일문일답식으로 우선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權純喆 : 감사원 감사에서 재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1억6,200만원입니다. 그것을 11월 17일날 유성종합 건설로서 현 위치에서 약 10m정도 위에 재시공을 했습니다. 재시공을 하는 도중에 12월 23일 동절기라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특히 복류수기능의 밑의 여과층에 모래나 자갈이 있어서 물이 흡관으로 빨려들어가야 되는데 그 공사 작업중에 보니까 그 지역이 석회암으로서 진흙이 나오고 그래서 복류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여만리로 옮길려고 추경에 4억2,000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작년에 공사를 하다가 중지를 한것이지요.

○ 李相燾 議員 : 그러니까 완전 시공이 다 된겁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아니 시공도중에 그 위치가 나쁘기 때문에 위치를 다른

위치로 옮겨서 하는것을 유성건설이 다시 하는 것이지요.

○ 李相燾 議員 : 피곤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현재 시공중지가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 都市課長 權純喆 : 네.

○ 李相燾 議員 : 여만리로 옮기는 바람에 시공이 중지가 되었다, 그러면 시공을 안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그 위치에 새로 옮겨서 하면 관계가 없는 거지요.

○ 李相燾 議員 : 그다음 현재 여만리 앞으로 상수원을 옮기기 때문에 기존시설인 취수보 167m 사업비 3억3,000만원은 만고에 쓸모가 없는 시설물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權純喆 : 현 위치는 양질의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이왕 시공하는 김에 장래를 보고 좀더 좋은 위치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향후에 그 시설이 평창의 인구가 늘어나

고 문화수준이 높아진다면 물 공급량이 모자라게 되면 그것도 가동을 해서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相薰 議員 : 그다음 집수매거 설계는 당초 설계가 있는데 설계대로 어느 회사인지 시공을 제대로 못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당시에 감독공무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러한 6,000만원이라는 부실공사가 야기되지 않았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합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히 감독을 해가지고 좋은 사업을 마쳐서 좋은 물을 읍민에게 공급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李相薰 議員 : 본 의원의 생각에는 3억3,000만원이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것이 93년도부터 추진해가지고 4년차에 걸쳐서 시행한 평창상수도 공사가 지금 취수모 167m라는것은 사실상 앞으로 쓸모가 없겠끔 되는 유명무실한 시설물이 되었는데 이것을 책임질 공무원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도시과가 전부 인사이동 해가지고 당시의 공무원도 정계도 없고 지적사항도 없고 3억3,000만원에 대한 엄청난게 예산낭비해가지고 말이지요. 이것은 지적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흘러간것, 지나간것, 그러니까 그냥 덮어두자 맑은공급을 위해서 상수원을 여만리로 이전한다는 자체는 좋은 겁니다. 좋은뜻을 우리 군의원들이 받아들여서 이번 추경예산때 예산심의를 해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여만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술적으로 내용을 잘모릅니다만, 큰강에 32m라는 보를 막아가지고 과연 양질의 맑은물을 공급할수가 있느냐 하는것도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여만리 상수원에 대한 시설,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공무에 바쁘시더라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만은 평창읍민이 마음대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관계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都市課長 權純喆 :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 議長 金樂雲 : 이경진 의원 질문하십시오.

○ 李慶鎮 議員 : 이경진 의원입니다. 작년도에 달동네 정비사업을 하시면서 도로연장이 405m인데 중간에 간선도로가 없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을때 달동네에서 국민학교 담 주변으로 나가는것이 꼭 필요하다면 학교의 동의를 받아서 학교를 줄이는 방안도 있고 다른방안은 제가 서있는 오른쪽 경찰서 쪽으로 옮기는 방안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가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 하셨었는데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전에 제가 군정 본질문에서 하기에 시간이 부족한것 같아 보충질문 자료에서 부탁을 드렸던 사항중에서 양지 아파트에서 제일감리교회 사이의 도시계획도로는 '92년도에 본 도로를 시공할때 벌써 소문은 엄청나게 나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대책이 없으신것 같은데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權純喆 : 제가아까 말씀드렸드시 평창군에 도시계획 도로가 나있는것은 아직 미개설된것이 254건에 85.561km입니다. 그중에서 이경진 의원이 말씀하신 양지아파트에서 중리 제일교회의 물량은 지금현재 조사를 해보면 길이가 100m에 폭 6m 도로입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장한테 말씀하신 한일약국 관계도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110m에 폭 6m, 또 이외에도 대화7리에서 대화관리소에 150m, 봉평 우리약국에서 중학교로 나는도로 약130m, 전부에 남양식당에서 개설해달라고 하는것이 170m 해서 여덟건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군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완급을 가려서 빠른시일내에 해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물으신 국민학교 옆의 달동네에서 하시는 사업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현재 사업이 다 끝나지도 않고 금년 7월 23일에 이번 추경에 보상이 서면 신라연립에서 향교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그것도 조금전에 말씀하신 유존아파트 그런건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하도록 조치를 하
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예정된 다섯분 의원의 질
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
니다.

장시간 진지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동
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
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5. 休會의件 (議長提議)

(17時02分)

○ 議長 金樂雲 : 다음은 의사일정 제2
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은 제31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7時04分 散會)

○ 出席議員

議 長	金 樂 雲
副議長	李 相 薰
議 員	李 慶 鎮
議 員	劉 燉 文
議 員	李 洙 現
議 員	金 斗 經
議 員	禹 康 鎬
議 員	金 鍾 永

○ 出席公務員

郡 守	金 容 郁
企 劃 室 長	申 大 松
文化公報室長	高 昶 植
內 務 課 長	李 永 德
社會振興課長	宋 在 明
財 務 課 長	權 赫 昇
地 籍 課 長	南 大 鉉

社 會 課 長 金 榮 柱
 環 境 保 護 課 長 李 敬 洙
 家 庭 福 祉 課 長 朴 靜 子
 産 業 課 長 金 時 漢
 地 域 經 濟 課 長 姜 慶 錫
 畜 産 課 長 鄭 義 秀
 山 林 課 長 李 基 椿
 建 設 課 長 洪 基 杓
 都 市 課 長 權 純 喆
 民 防 衛 災 難 管 理 課 長 金 昌 吉
 保 健 事 業 課 長 孫 東 欽

○ 議 會 事 務 課

事 務 課 長 李 京 植
 專 門 委 員 辛 敏 善
 議 事 係 長 咸 京 鎬
 地 方 行 政 主 事 補 邊 相 得
 地 方 行 政 主 事 補 李 錠 均

【 議 席 】

○ 議 席 表 (16面에 실음)

【 報 告 事 項 】

- 의안접수사항
 -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 . 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이상2건 '96.6.1 - 평창군수제출)
- 의안처리사항
 - .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6.5.27 - 평창군이송)
 - . 1996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6.5.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사항
 - . 위원장 - 유돈문위원 선임
 - . 간 사 - 김종영위원 선임
- 일반문서 접수사항
 - . 제77회전국체육대회태백산성화채화틀위한성명서 ('96.5.28 - 태백시의회)
 - . '96.6.4 출석공무원(부군수) 교육으로인한결석통지('96.6.1-평창군수)

질 문 · 답 변 서

질 문	김 두 경 의원	답 변	평 창 군 수 (사회진흥과장)
회 의	제36회 평창군 의회(임시회) ('96. 6. 4 제2차 본회의)		
<p>< 질 문 요 지 ></p> <p>○ 봉평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중 보상금 30% 미지급 농가가 몇 농가인지 ?</p>			

< 답 변 >

- 김두경의원께서 질문하신 봉평면 소도읍가꾸기 사업중 보상금 30% 미지급농가가 몇농가 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토지보상금중 30%를 미지급 받은 농가는 37가구 54필지 3,417㎡에 156,953천원으로 미지급 농가 37농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상금 30% 미지급 농가

: 최해석, 홍종수, 김광준, 한갑수, 신용선, 장병철, 우홍범, 한국전력공사 조인식, 장경량, 최분남, 서명옥, 박원석, 전재윤, 전용석, 임명호, 심상춘, 이남중, 조규학, 봉평농협, 강흠경, 김강열, 박준홍, 곽희준, 최종욱, 엄익주, 곽만규, 손택용, 김남준, 김봉일, 봉평교회, 신상규, 김화남, 산림조합, 김정선, 곽철근, 김길선

질 문 · 답 변 서

질 문	이 수 현 의원	답 변	평창군수 (환경보호과장)
회 의	제4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p style="text-align: center;">(질문요지)</p> <p>1. 농촌 피서지 쓰레기의 합리적 수거를 위한</p> <p>가. 오물투기 단속과 주민계몽을 위한 대책은?</p> <p>나. 군내 전역에 쓰레기 투기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실제 단속실적이 부진한 것은 단속행정의 누수가 있는것은 아닌가?</p> <p>다. '94~'95 쓰레기 발생량과 수입금액과의 자료는 분석 하겠는가?</p> <p>라. 폐기물 관리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추이를 분기별로 답변</p>			

〈 답 변 〉

환경보호과장 이정수입니다.

이수현의원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가. 오물투기 단속과 주민계몽을 위한 대책은?

쓰레기투기단속을 위해 주말이나 휴일, 휴가기간에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키운동 평창군 추진협의회와' 공동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주민계몽을 위하여 비지정관광지, 유원지, 국립공원매표소와검문소, 휴게소 등에서 행락객들에게 홍보·경고 전단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키운동』 민간단체 추진 협의회구성 : 34개 단체 3,920명

- 폐기물관련 조례개정으로 오물투기자 처벌기준 강화

- 차량을 이용 피서지를 순회하면서 안내방송실시

-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하여 신고 보상제를 실시하여 신고의식을 함양하고자 함

나. 군내 전역에 쓰레기 투기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실제 단속실적이 부진한 것은 단속행정의 누수가 있는것은 아닌가?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지능화로 인해 증거물 확보가 어렵고, 타지역에서 차량을 이용 투기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단속공무원 전무한 상태임.

다. '94~'95 쓰레기 발생량과 수입금액과의 자료는 분석 하였는가?

'95. 1. 1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으로 '94년에 비해 쓰레기발생량은 1/2로 크게 줄었으며, 반면 쓰레기발생으로 인한 세외수입은 4배가량 크게 늘었음.

- '94, '95 쓰레기 발생량과 수입금액

구 분	쓰레기 발생량(톤/일)	수 입 금 액(원)
'94년	40	51,751,720
'95년	20	205,201,977

라. 폐기물 관리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추이를 분기별로 답변

계절별로 비교해 볼때 일반적으로 집수리등이 많은 봄철(3~6월)과 행락철(7~9월)에 폐기물 관리법 위반자가 가장많이 적발되며 가을, 겨울철에 위반자가 거의 없음.

년 도	월 별	건 수	부 과 액
'95년	2월	3건	250,000원
"	3월	8건	400,000원
"	6월	1건	200,000원
"	7월	1건	100,000원
"	8월	1건	10,000원
'96년	5월	2건	700,000원

질 문 · 답 변 서

질 문	이 수 현 의원	답 변	평창군수(지역경제과장)
회 의	제4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p><질 문 요 지></p> <p>레미콘 제조시 무허가 골재업체로부터 골재를 공급받은 경우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은?</p>			

<답 변>

- 대화산업개발(주) < 대표 이명우 >에서 95년 7월부터 96년 6월8일 산림채석 허가를 득하기 전까지 관내 레미콘 제조업체중 대암레미콘및 현립레미콘에 골재를 공급하였는바 이에따른 지도.감독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답변은 강원도 법무담당관실및 상공과 공업계에 우선질의하여 회신 받은 답변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레미콘 제조업체에 대한 대화산업개발(주)의 골재공급현황은
 - 대암레미콘 약13,000m³, 현립레미콘 약4,300m³ 입니다.
- 레미콘제조에 따른 품질관리에 대하여는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하여 96. 1월 새로이 발족된 중소기업청에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본권한을 강원도에 위임하였으며 강원도에서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조된 레미콘에 대하여 샘플 및 시판품을 검체.시험과정을 거치는등의 방법으로 지도.감독업무를 수

행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레미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골재를 골재채석 허가를 받지않은 사업장에서 공급 받았을 경우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지도감독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골재채석허가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지도감독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말씀 드립니다.